

ANNUAL REPORT

인구학적 관점으로 보는
청년특별시 관악을 위한 기초연구

책임연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교수

'꿈의 시작' 관악

전국적으로 인구, 청년 정책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관악구는 전국 청년 인구 비중이 40.3%를 띄며 압도적인 청년 인구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이와 같은 높은 청년 인구 비율을 보며, 이 수많은 청년들이 실제 관악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한 각각 어떤 꿈과 희망을 품은 채 관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등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가 기획한 소주가 청년층을 사로잡으며 품절대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수, 소속사 대표라는 직업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인 “소주”를 가지고 창업을 고민했습니다. 단순 셀럽 마케팅이 아닌, 원료 양조장 등 풍부한 스토리와 더불어, 긴 시간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명품 못지않은 “오픈런” 팬덤을 얻었습니다.

관악은 최근 민선 7기 동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관악S밸리” 기반을 구축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악구 대학동 등에 위치한 캠퍼스타운 거점 센터로 많은 창업기업들을 입주하게 하고, 관악구와 서울대에 다양한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육성 사업들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만큼, 우리 수많은 관악 청년들 중 K-Culture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창작하는 또 다른 청년들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느덧 관악문화재단이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재단은 전국 문화재단 최초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교수를 필두로 관악의 “인구” 그리고 “청년”을 함께 고민하며 인구학의 영역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본격적으로 찾아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청년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관악만의 인구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청년창업가는 물론, 관악형 로컬문화조성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관악은 가장 젊고 힘찬 “청년특별시”입니다. 모두가 청년인 열정과 가능성의 도시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차민태(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연구에 참여한 분들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아태인구연구원

책임연구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

공동연구

임예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연구원

최원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연구원

김미혜 (주)아태인구연구원 연구원

목차 INDEX

I.	연구개요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16
	2. 과업 목적	17
	3. 과업 내용 및 프로세스	18
II.	연구방법론	
	1. 활용 데이터	19
III.	연구결과	
	1. 서울 속 관악구 살펴보기	20
	1) 청년이 가장 많이 찾는 구, 관악구	24
	2) "지역 청년"은 다른 구보다도 관악구를 찾고 있다.	27
	3) 관악구 청년들은 낮에 다른 곳으로 간다.	29
	4) 이동이 잦은 관악구 청년	30
	5) 관악구에는 두 가지 유형의 행정동이 있다.	30
	2. 관악구 주요 가구 살펴보기	45
	1) 관악구 내 청년 인구는 어디로 진출하나?	46
	2) 관악구 내 청년 가구주의 가구는 어떤 형태로 살고 있나?	47
	3) 관악구 내 청년 가구는 어디에 살고 있나?	48
	4) 관악구 내 청년 가구는 어떻게 살고 있나?	50
	5) 관악구 내 청년 가구는 어떤 이유로 전입하나?	51
IV.	제언	
V.	참고문헌	55
	부록	

표 차례

<표 1>	1975-2020 년 각 구별 20~39 세 청년 인구 비중	25
<표 2>	2001-2020 년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20~39세 청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26
<표 3>	2015, 2020 년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전출자별 전입지 비율	45
<표 4>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외부 전입자 전입 사유	50

그림 차례

<그림 1>	2020 년 관악구 인구피라미드	21
<그림 2>	2020 년 전국 인구피라미드	21
<그림 3>	2020 년 서울특별시 인구피라미드	21
<그림 4>	2020 년 중구 인구피라미드	22
<그림 5>	2020 년 용산구 인구피라미드	22
<그림 6>	2020 년 서초구 인구피라미드	22
<그림 7>	2020 년 송파구 인구피라미드	22
<그림 8>	2020 년 중랑구 인구피라미드	23
<그림 9>	2020 년 노원구 인구피라미드	23
<그림 10>	2020 년 강남구 인구피라미드	23
<그림 11>	2020 년 은평구 인구피라미드	23
<그림 12>	2020 년 마포구 인구피라미드	24
<그림 13>	2020 년 서대문구 인구피라미드	24
<그림 14>	2020 년 코로나 이후 구별 월-목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15>	2020 년 코로나 이후 구별 금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16>	2020 년 코로나 이후 구별 토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17>	2020 년 코로나 이후 구별 일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18>	2019 년 코로나 이전 구별 월-목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19>	2019 년 코로나 이전 구별 금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20>	2019 년 코로나 이전 구별 토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21>	2019 년 코로나 이전 구별 일요일 생활인구	27
<그림 22>	1년 전과 지금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20-39세 인구 비중	29
<그림 23>	1년 전과 지금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40-64세 인구 비중	29
<그림 24>	1년 전과 지금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29
<그림 25>	2020 년 청림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26>	2020 년 난향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27>	2020 년 은천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28>	2020 년 성현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29>	2020 년 난곡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30>	2020 년 삼성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31>	2020 년 미성동 인구피라미드	30
<그림 32>	2020 년 보라매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3>	2020 년 행운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4>	2020 년 낙성대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5>	2020 년 중앙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6>	2020 년 인현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7>	2020 년 남현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8>	2020 년 서원동 인구피라미드	35
<그림 39>	2020 년 신원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0>	2020 년 서원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1>	2020 년 신사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2>	2020 년 신림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3>	2020 년 조원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4>	2020 년 대학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5>	2020 년 청룡동 인구피라미드	36
<그림 46>	관악구 행정동별 인구피라미드 유형 구분	44
<그림 47>	관악구 2015-2020 년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46
<그림 48>	전국 2015-2020 년	46
<그림 49>	전국 2015-2020 년	46
<그림 50>	2020 년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청년 가구주 가구 거쳐 종류 분포	47
<그림 51>	관악구 2015, 2020 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49
<그림 52>	전국 2020 년	49
<그림 53>	서울특별시 2020 년	49
<그림 54>	마포구 2020 년	49
<그림 55>	서대문구 2020 년	49
<그림 56>	Robert, SA (1998).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on adult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18~37 로부터 변형	53

연구결과 요약

- 01 관악구 인구 키워드
- 02 관악구 인구 키워드 요약
- 03 관악구 문화서비스 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제안
- 04 후속 연구 발굴

01 관악구 인구 키워드

압도적
청년인구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많이 찾고,
많이 떠나는 곳

청년의
생활지가 아닌
거주지

청년 정책
고민

행정동 별
차이

1인
가구일 때만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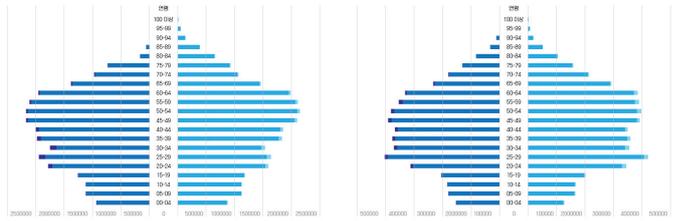
월세
사는 곳

압도적 청년인구

관악구 인구 피라미드 모양은 UFO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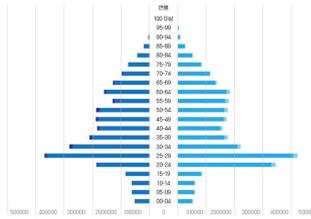
2020년 관악구의
2030 청년 인구 비중은 40.3%로
전국 26.9%, 서울시 30.9%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전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전입자 분석 결과 비수도권 출신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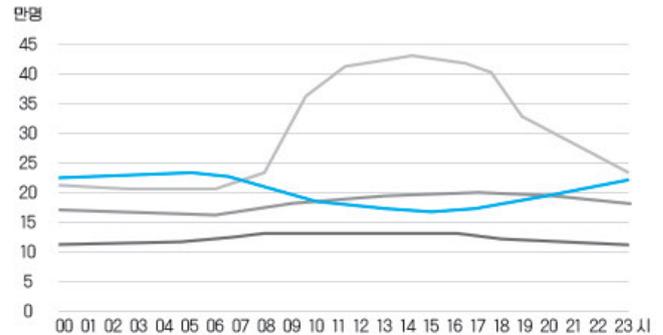
지역 청년들의 서울 이주 시
주요 Destination이 되고 있으며
관악구 청년들 간 지역적 다양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

많이 찾고, 많이 떠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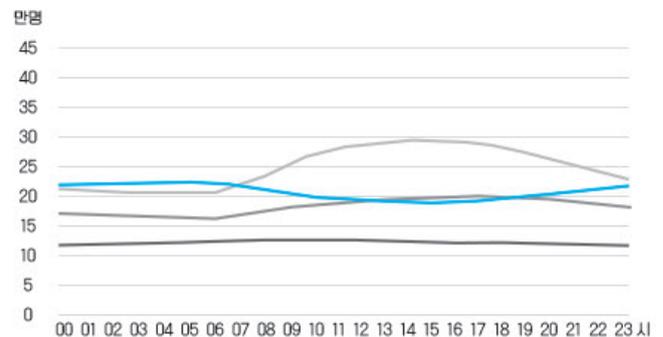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된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관악구,
서울을 떠날 때 다시 지역으로 가
는 비율도 가장 높은 관악구

청년의 생활지가 아닌 거주지

낮 시간을 주로 다른 곳에서 보내지만,
저녁 시간과 주말 동안은 관악구에 머무름



2020년 코로나 이후 구별 금요일 생활인구



2020년 코로나 이후 구별 토요일 생활인구

■ 강남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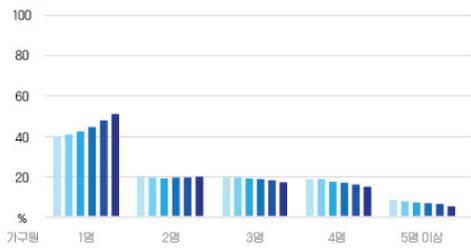
청년 정책 고민

청년을 Push-out하고 있는 원인 요소들을 찾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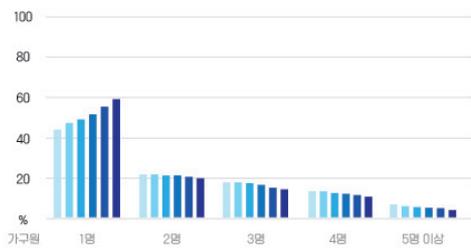
- 열악한 거주환경이라면 지역사회(정책영역)가 열악한 거주환경(개인영역)을 보완할 수 없는지 고민해야 함
-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정책(행정), 커뮤니티(사회자본), 공간(녹지, 공원), 소비 환경(지역 상권), 문화환경(공간, 서비스,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
- ▶ **지역사회 특성들 가운데 어떤 특성이 정책적으로 접근가능하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함**

1인 가구일 때만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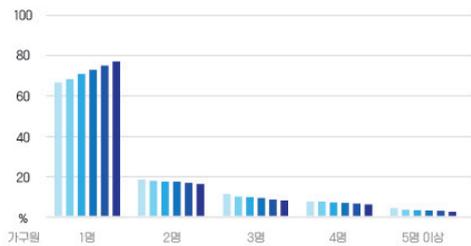
1인 가구일 때 관악 거주 후 결혼 및 출산 시 전출



전국 2015-2020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서울시 2015-2020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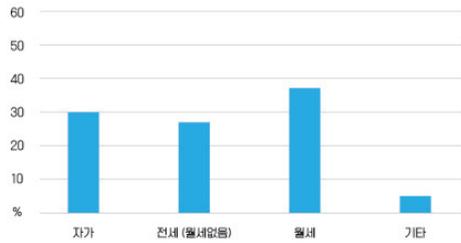


관악구 2015-2020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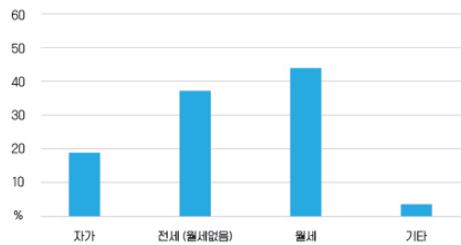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월세 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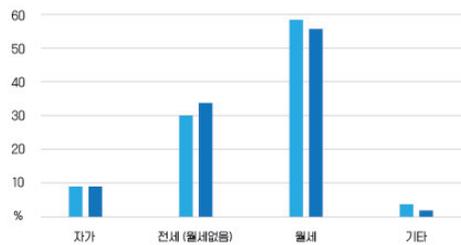
관악구 청년 가구의 점유 형태는 월 세가 압도적



전국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서울특별시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관악구 2015,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 2015 ■ 2020

행정동별 차이

**항아리 모양 총 6개동 (청림동 외 5개),
UFO모양 총 14개동(보라매동 외 13개)으로
같은 관악구 내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이 모든 곳에 분산 분포된 것이 아니라 14개 UFO모양 동에 집중됨
- 지하철 2호선을 기점으로 주변 신림동, 청룡동, 낙성대동 등에 청년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음

02 관악구 인구 키워드 요약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청년이 많이 찾는 관악구



그런데 관악구 청년들은
거주지도 자주 옮긴다!



동별 확연한 차이:
UFO 모양(청년 인구 집중 지역), 향아리 모양



혼자서 월세로 살다가,
결혼을 하거나 경제력이 나아지면 떠나는 곳



낮 시간은 다른 곳에서 활동, 밤과 주말엔
관악에서 머문다 (생활지가 아닌 거주지)

관악구 생활인구의 자세한 특징은 통신사 기지국 O.D. DATA 분석을 통해
보충연구를 진행한다면 여러 사실 및 가설들을 면밀히 밝혀낼 수 있음

03 관악구 문화 서비스 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제안

압도적 청년인구

전국, 서울특별시와 향아리 모양을 띠는 것과 달리 관악구는 UFO 비행접시 모양을 띠음. 압도적으로 많은 청년 인구가 주요 수요자일 가능성이 큼.

지역 내 청년&청년예술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필요.

청년들의 지역적 다양성 활용

지역적 배경에 따라 문화서비스 니즈가 다를 수 있어 이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

전국에서 오는 청년들의 지역적 다양성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는 관악만의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고민 및 논의 필요.

주말 휴식의 조력자

평일보다는 주말에 문화서비스 수요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 주말이라는 시간적 특성이 활용되어야 함.

평일 밤과 주말 동안 이동이 없이 관악구 내에 머무르는 청년들의 실제 Life Cycle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이후 지속적인 연구 필요.

1인 가구를 위한

공간 확장성 서비스

1인 가구의 거주공간에 대한 특성 파악 후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문화서비스 발굴 가능

지역에 있는 민간 복합문화공간, 관악문화재단 운영 시설(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미디어센터 관악, 싱글빙글 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주거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열린 공간에 대한 갈망 충족하는 사업 필요.

동별 차별적 서비스

청년 대상의 행정동과 원주민 대상의 행정동 간 구분 및 맞춤형 서비스 발굴 필요

- 관악구에 20~30대 청년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모든 동에 청년들이 분산 분포된 것은 아님.
- 7개 동(청림동, 삼성동, 난향동, 미성동, 은천동, 난곡동, 성현동)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향아리 모양을 띠우며 나머지 14개 동(보라매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현동, 남현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신림동, 조원동, 대학동, 청룡동)에 청년들이 집중되어 있음.

재단 내 시설(작은 도서관, 싱글빙글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관악구 행정동 별 거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논의 필요.

관악구 생활인구

청년이 많은 곳답게 관악구의 생활인구는 낮에 줄고 밤에 늘어남

- 주말의 생활인구는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악에 청년들은 관악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관악구 청년 거주 공간이 넓지 않다면,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려 할 것. 그런데 관악구에서 그 공간을 찾는다면 역시, 그곳이 어디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 필요.

실제 관악의 청년들이 주말을 관악에서 보낸다면, 이들의 시간 사용, 사용되는 공간, 콘텐츠 등이 무엇인지 직접적인 확인 필요.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

청년 인구 대상의 문화서비스에 원주민(대부분 기성 세대)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청년예술인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주체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체 관악구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 필요.

04 후속 연구 발굴

통신사 기지국 O.D. data 분석

행정동별 통신사 기지국 O.D. data(Original Destination data) 분석을 통해 관악구 내 인구집단별 문화생활지도 발굴.

- 관악구 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지 정량적인 파악 가능
- 이를 토대로 관악구 내 청년 인구의 시간/공간 사용, 소비 콘텐츠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심층 인터뷰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인구집단별로 관악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발굴

양적 Survey

심층 인터뷰에서 밝혀진 문화다양성 측면의 인구집단별 관악구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개선/확산하기 위한 방안 도출

- ▶ 관악구 생활인구와 관련된 정확한 해석&분석을 통해 추후 관악구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조성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위해 O.D. DATA를 활용한 연속적인 보충연구 필요



I. 연구개요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관악문화재단은 2021년 7월 15일(목) MOU 협력관계를 맺음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다양성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작업을 공동으로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할 예정임.
- 관악문화재단은 지역 사회의 문화서비스를 추진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연구를 통한 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청춘특별시 관악구’임.
- 본 연구는 ‘청춘특별시 관악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첫 번째 기초연구임.
- 현재 관악구는 청춘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범위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문화다양성’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수반되어야 함
- 특히 ‘누구를 위한 문화다양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년도 관악구 문화다양성에 대한 질적/양적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기 전,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다양성’의 기본 단위는 ‘인구’이기에,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는 인구 통계를 통한 접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구학적 해석이 필요함.
- 인구학은 단순히 ‘저출산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만 국한된 학문이 아님.
-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인구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의 이동 양상이 어떠한지 등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또한 인구학의 영역임.

2. 과업 목적

-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가장 큰 화두임.
-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초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하는 대상임.
- 그러나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저출산 해결 정책을 펼치기란 쉽지 않음.
-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인구 구성이 어떠한지, 그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그리고 그 배경을 통해 ‘어떤 지역 사회 문화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검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과업의 목적으로 함.
- 첫 번째는 관악구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문화서비스가 발굴 및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지역에 맞춘 문화서비스와 정책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관악구의 인구는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밝혀 수요자의 요구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관악구의 인구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지역 인구 특성을 도출함.
- 두 번째는 “문화다양성 확산지원사업” 추진의 근거 및 전략 마련임.
- 관악문화재단은 2019년 8월 출범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음.
- 따라서 2021년 한 해를 지역 주민의 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사업의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음.
- 이때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공공과 인구 전문가, 지역 이해관계자, 구민의 협력에 기반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 및 사업 구축의 첫 단계를 수행함.
- 관악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역할을 재정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위해 고민, 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도록 함.

3. 과업 내용 및 프로세스

01 서울 속 관악구 살펴보기

구 단위에서의 관악구 인구 특성 파악
(타 구와의 차별점 확인)



관악구 내 행정동별 인구 특성 파악
(행정동별 공통점/차이점 도출)

02 관악구 주요 가구* 살펴보기

관악구 주요 가구*
(eg. 1인 가구, 청년 가구 등) 현황 파악



주요 가구*가 관악구에서 갖는 함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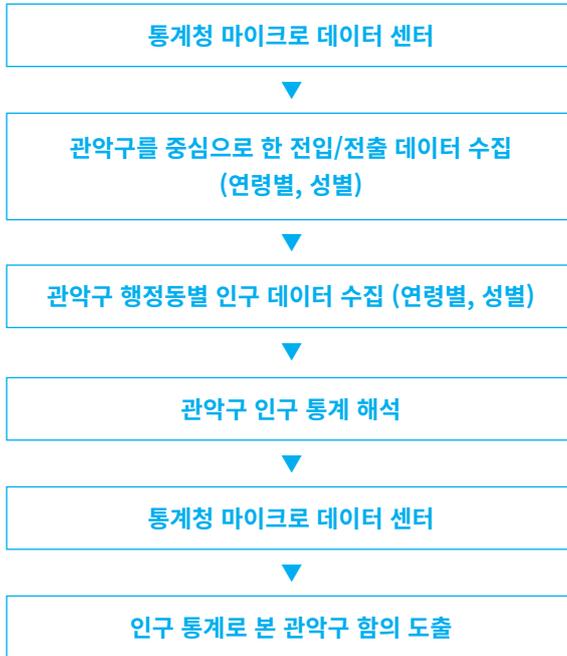
* 관악구의 주요 가구는 1의 결과로 도출될 예정

03 종합

관악구 인구 통계 해석 및 결과 종합

- 우선 서울시 내 25개 구 중 하나로서의 관악구를 파악함. 타 구와의 비교를 통해 관악구가 갖는 다른 구와의 차별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비교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연령대별 비중 등에 대해 이루어짐.
- 다음으로는 관악구 내 21개 행정동별 인구 특성을 파악함. 이는 인구 규모 와 인구 구조, 연령대별 비중,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짐.
-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관악구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구를 주요 가 구로 설정함.
- 해당 주요 가구가 설정된 뒤, 이 유형의 가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탐색 및 분석하여 살펴봄.
- 동시에 해당 주요 가구에 대해 알기 어려운 한계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함.
- 수집 및 분석된 자료를 해석하고 정리하여 연구를 마무리함.

II. 연구방법론



1. 활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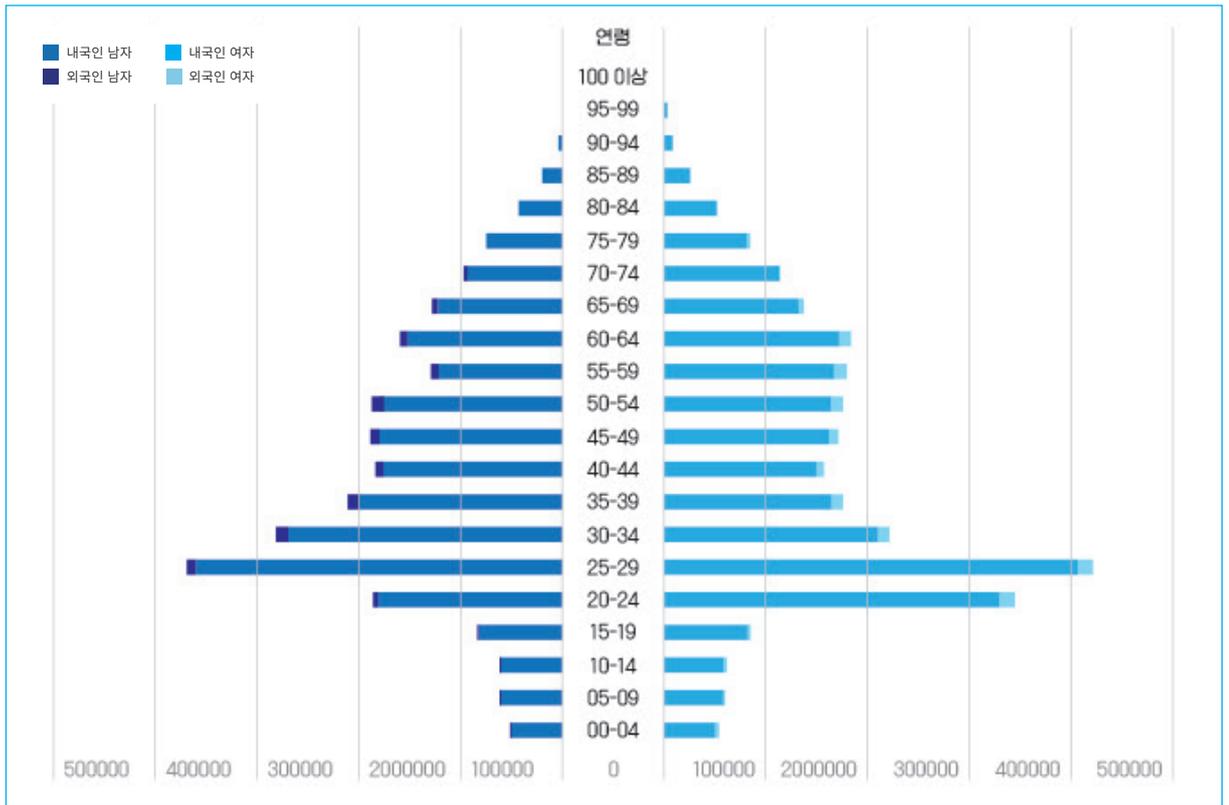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분석을 수행함.
- 첫 번째는 인구총조사임. 인구총조사란, 인구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임.
- 이번 연구에서 관악구가 갖는 타구와의 차별점을 파악하고 관악구 내 행정동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된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관악구 내 주요 가구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데에도 해당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음.
- 각종 가구 관련 경성조사의 표본 틀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연구 맞춤형 조사 자료는 아닌 만큼 일부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함.
- 두 번째는 국내인구이동통계임. 국내인구이동통계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해 인구 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인구 정책 및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해 활용되는 기초자료임.
- 인구의 순환이 활발한 관악구의 특성상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전입하는지, 혹은 어느 지역으로 전출하는지와 같이 맥락적인 해석에 주로 활용함.
- 세 번째는 서울생활인구데이터임. 서울생활인구 데이터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로, 서울시 내 6,000여개 기지국(19,153개 집계구)에서 감지한 KT 통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
- 서울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이용 하여 연계되었으며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내포함.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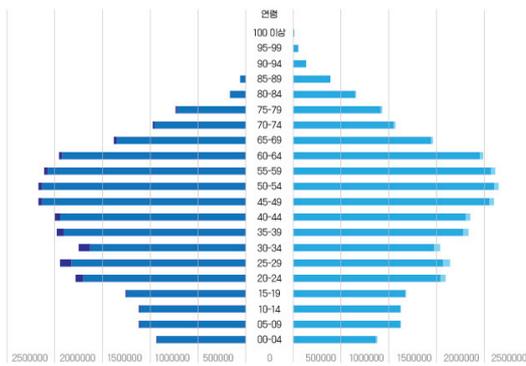
1. 서울 속 관악구 살펴보기

1) 청년이 가장 많이 찾는 구,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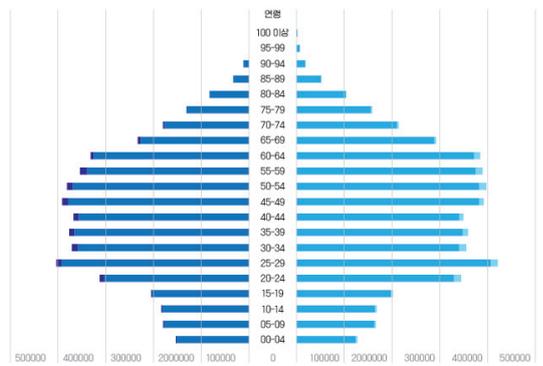
- 관악구는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 기준 인구 약 503,000명으로, 서울시 25 개 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관악구는 인구 규모 측면보다 인구 구성 측면에서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관악구의 인구피라미드는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매우 적으며 그에 비 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약 41,700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71,800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50,60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약 38,600명임.
- 관악구의 20대 인구는 약 113,500명으로 전체 관악구 인구 중 약 22.6%를 차지함.
- 전체 관악구 구민의 5명 중 1명은 20대로 매우 젊은 구라고 할 수 있음.
- 관악구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약 202,700명으로 전체 관악구 인구 중 약 40.3%에 달함.
- 이렇게 젊은 인구가 많으면 보통 밝고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우리 관악구의 분위기가 이러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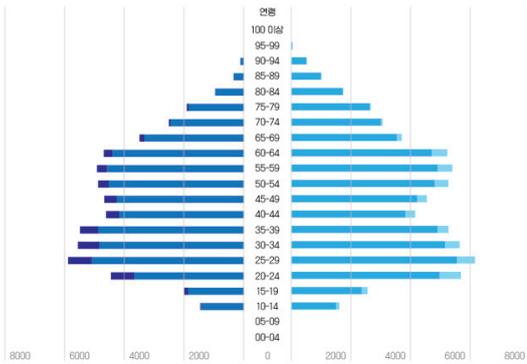
<그림 1> 2020년 관악구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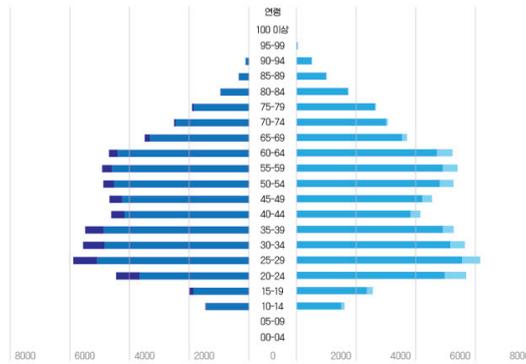
<그림 2> 2020년 전국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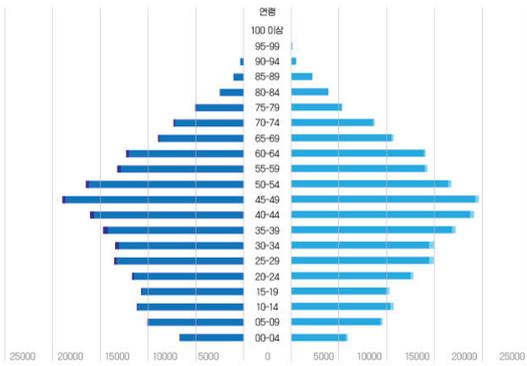
<그림 3> 2020년 서울특별시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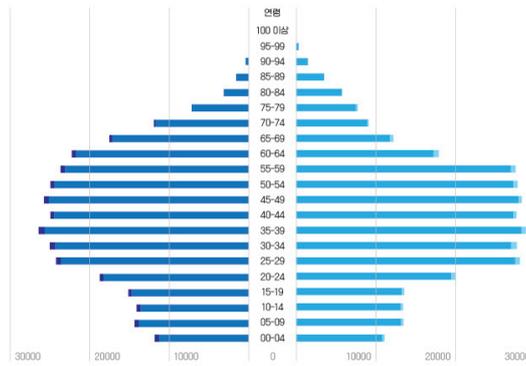
<그림 4> 2020년 중구 인구피라미드



<그림 5> 2020년 용산구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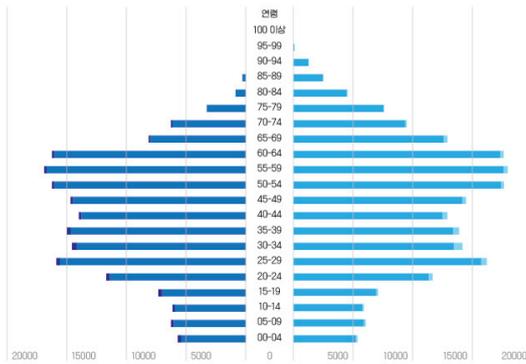


<그림 6> 2020년 서초구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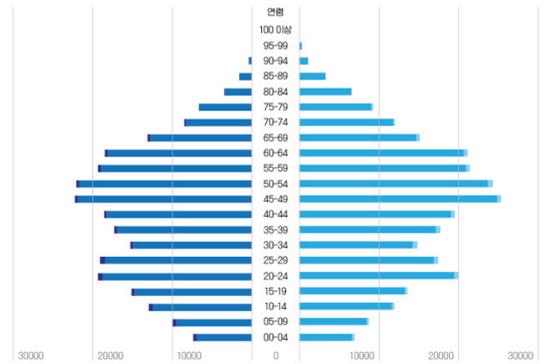


<그림 7> 2020년 송파구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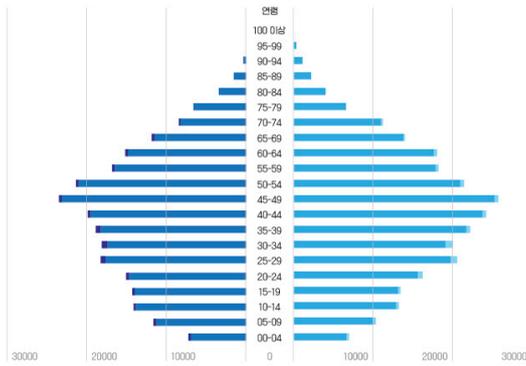
- 관악구를 서울의 여러 다른 구와 비교하여 볼 수 있음. 관악구를 제외한 전체 24개 구 중 각 기준에 따라 10개 구를 살펴보았음.
- 해당 비교 또한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음.
- 대부분의 구는 전국 및 서울특별시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비슷한 인구피라미드 모양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전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비교하여 볼 때, 스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는 것이 중요함.)
-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중구와 용산구임. 이들은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전국이나 서울특별시의 인구보다 더 적은 영유아, 청소년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음.
- 다음으로는 서울 남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역인 서초구 및 송파구임. 이들은 전국, 서울특별시보다 월등히 많은 영유아, 청소년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음.
-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 또한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다음은 서울 북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역인 중랑구와 노원구임. 이들은 전국,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수준의 영유아, 청소년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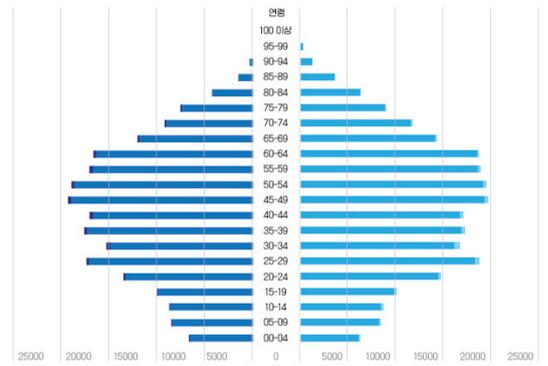
<그림 8> 2020년 중랑구 인구피라미드



<그림 9> 2020년 노원구 인구피라미드



<그림 10> 2020년 강남구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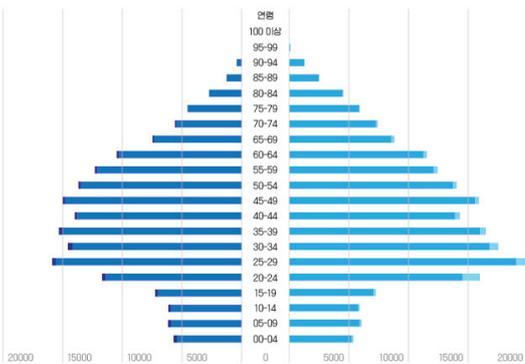
<그림 11> 2020년 은평구 인구피라미드

- 마지막 비교 구 집단은 인구 규모가 관악구와 비슷한 수준인 강남구(2020년 기준 약 508,000명)와 은평구(2020년 기준 약 463,000명)임.
- 이들은 모두 전국,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년층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구는 선명한 UFO 모양을 갖는 관악구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음.
- 즉, 전국 및 서울특별시와 대부분의 구들이 유사한 인구피라미드 모양을 가지는 것과 다르게 관악구의 인구피라미드 모양은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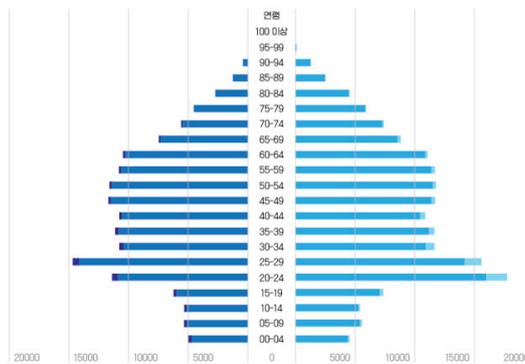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2) "지역 청년"은 다른 구보다도 관악구를 찾고 있다.

- 혹시 그럼 관악구 외에는 UFO 모양의 인구피라미드를 갖는 구가 없는 것일까? 혹은 관악구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찾는 다른 구에서도 UFO 모양의 인구피라미드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총조사 자료로 서울시 내 25개 구의 구별 20세에서 39세 청년 비중을 살펴보았음.
- 우선, 앞서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관악구는 2020년 기준 가장 높은 청년 인구 비중(40.3%)을 보였음.
- 관악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 비중 측면에서 압도적인 단독 1위를 해 오고 있음.
- 관악구 외에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구에는 2020년 기준, 마포구(35.5%), 광진구(35.5%), 동대문구(34.0%), 중구(34.0%), 동작구(33.9%), 서대문구(33.4%), 성동구(33.4%), 용산구(33.0%), 영등포구(33.0%)가 있음.
- 이들 중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추가로 살펴보았음.
-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마포구에는 전체 구민 중 약 35.5%가, 서대문구에는 전체 구민의 약 33.4%가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임.
- 서울시 25개 구의 20세에서 39세 청년 비중이 평균 31.3%임을 감안하면 마포구와 서대문구 모두 높은 청년 인구 비중을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이지만, 관악구의 인구피라미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UFO 모양을 보이지는 않음.
- 이는 관악구에 비해 두 지역에서 더 높은 중장년 및 고령 인구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이처럼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모든 구에서 관악구와 같은 UFO 모양의 인구피라미드가 보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2> 2020년 마포구 인구피라미드



<그림 13> 2020년 서대문구 인구피라미드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행정구역	20~39세(%)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종로구	35	37	38	40	40	37	36	33	32	32
중구	36	38	40	42	41	39	38	34	32	34
용산구	35	37	38	40	41	39	37	35	32	33
성동구	36	38	41	43	44	40	39	35	33	33
광진구					43	41	40	38	35	36
동대문구	36	38	40	41	42	39	38	35	33	34
중랑구				41	42	38	35	32	30	29
성북구	34	37	38	40	41	38	37	34	31	31
강북구					41	38	35	32	28	27
도봉구	36	37	38	40	40	35	33	30	28	26
노원구				41	38	36	34	30	28	27
은평구		36	36	38	41	37	35	31	29	28
서대문구	35	36	38	40	42	40	38	34	33	33
마포구	34	37	39	41	42	41	41	38	35	35
양천구				39	37	35	33	29	27	26
강서구		41	41	40	39	37	36	34	32	32
구로구		40	42	43	42	39	37	35	31	29
금천구					44	40	36	33	30	31
영등포구	47	38	40	41	43	40	38	35	32	33
동작구		37	39	41	43	41	41	38	35	34
관악구	35	37	38	40	44	43	45	42	39	40
서초구				33	36	38	37	34	30	28
강남구	35	38	34	31	35	38	38	35	32	29
송파구				38	38	37	36	34	31	31
강동구		39	40	39	37	36	34	33	30	29

<표 1> 1975-2020년 각 구별 20~39세 청년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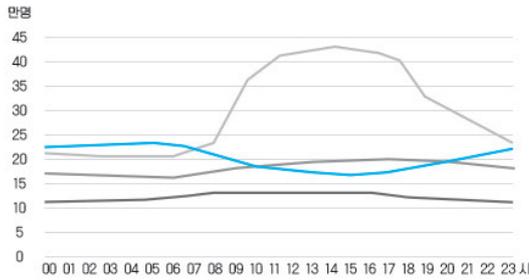
전입지	전출지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관악구	서울	66%	68%	63%	62%	61%	62%	61%	62%	60%	59%	58%	58%	59%
	인천/경기	14%	14%	15%	15%	15%	15%	15%	15%	15%	16%	16%	17%	17%
	그 외 지역	20%	19%	22%	23%	24%	23%	24%	23%	25%	25%	26%	26%	24%
마포구	서울	68%	73%	73%	72%	72%	70%	70%	71%	69%	68%	67%	65%	67%
	인천/경기	15%	14%	14%	14%	14%	15%	15%	15%	16%	16%	17%	17%	17%
	그 외 지역	17%	13%	13%	13%	13	15%	15%	14%	16%	16%	16%	17%	16%
서대문구	서울	69%	73%	70%	71%	69%	70%	68%	71%	70%	68%	66%	65%	66%
	인천/경기	15%	14%	14%	14%	14%	15%	15%	14%	15%	16%	16%	17%	17%
	그 외 지역	16%	14%	15%	15%	15%	16%	16%	15%	15%	16%	17%	18%	17%

<표 2> 2001-2020년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20~39세 청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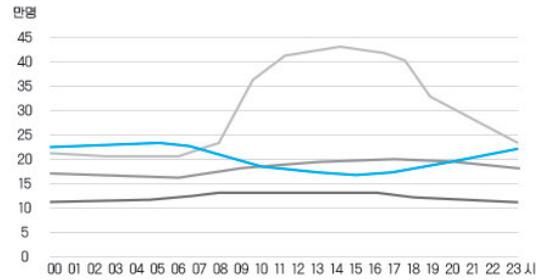
- 서울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청년 인구에게 거주지로 선호되는 관악구, 마포 구, 서대문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음.
-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해 관악구, 마포구, 서대 문구로 전입한 청년 인구의 전출지 분포를 확인함.
- 전출지는 서울, 서울 외 수도권 지역(경기, 인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 분하여 살펴봄.
-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관악구로 전입한 전체 청년 중 지역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 24%)이 마포구나 서대문구로 전입한 전체 청년 중 지역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2020년 마포구 16%, 2020년 서대문구 17%)보 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 됨.
- 즉,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관악구로 전입한 청년 10명 중 2.4명이 지역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이에 비해 마포구나 서대문구로 전입한 청년 10명 중 지역 청년은 각각 1.6명, 1.7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악구로 전입하는 청년 인구의 규모가 마포구나 서대문구로 전입하는 청년 인구의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큰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지역 청년이 관악구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경우 관악구는 다른 곳보다 높은 확 률로 목적지가 되고 있으며, 관악구 청년들 사이에 출신 지역적 다양성이 다른 곳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함.

3) 관악구 청년들은 낮에 다른 곳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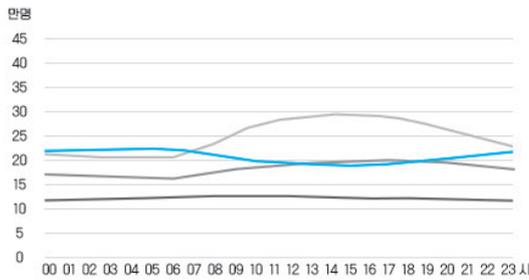
■ 강남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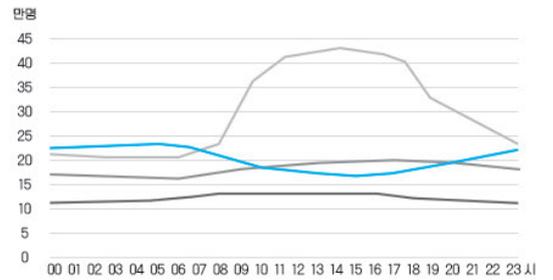
<그림 14> 2020년 코로나 이후 구별 월-목요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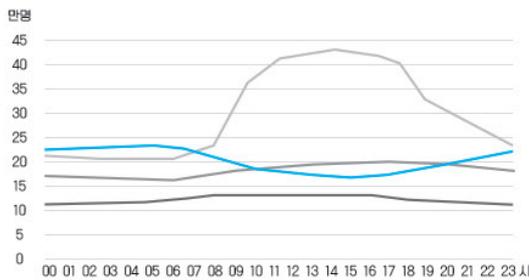
<그림 15> 2020년 코로나 이후 구별 금요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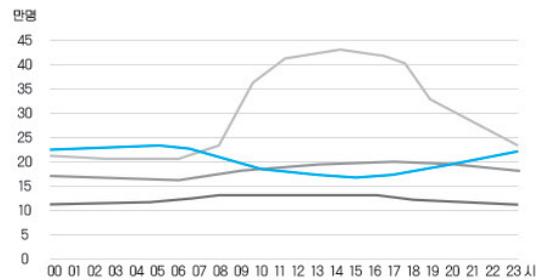
<그림 16> 2020년 코로나 이후 구별 토요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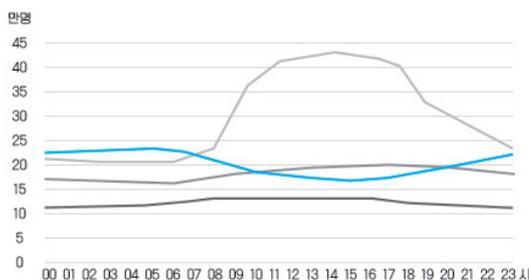
<그림 17> 2020년 코로나 이후 구별 일요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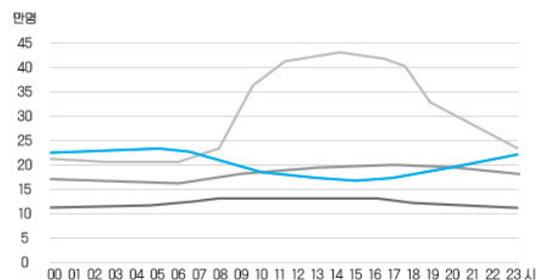
<그림 18> 2019년 코로나 이전 구별 월-목요일 생활인구



<그림 19> 2019년 코로나 이전 구별 금요일 생활인구



<그림 20> 2019년 코로나 이전 구별 토요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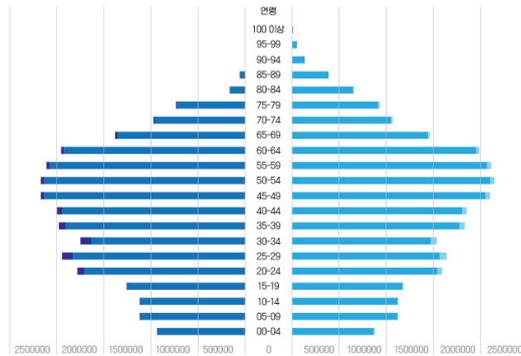


<그림 21> 2019년 코로나 이전 구별 일요일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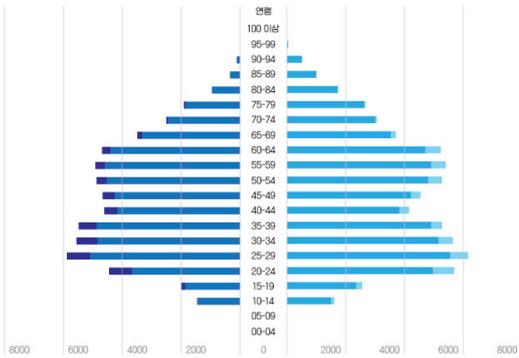
- 관악구 청년들이 관악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까? 관악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소비하고 즐기고 생산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2019년, 2020년 서울생활인구 데이터를 살펴보았음.
-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해당되는 일자 전체의 1년치 평균을 산출하여 해석함.
-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임.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정 시간에 해당 지역에 방문 등의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집계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관악구에 살지 않아도 낮에 관악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관악구에서 집계되는 관악구 생활인구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낮에는 다른 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관악구의 생활인구라고 보기 어려움.
- 빨간색으로 표현된 관악구 생활인구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낮 시간대(08시부터 18시까지)에 많은 청년 인구가 관악구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됨.
- 다시 말하면,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 규모가 확연하게 감소하여 관악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낮 시간대(08시부터 18시까지)에 청년 인구가 다소 증가하거나 그 외 시간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됨.
- 또한 관악구의 모습은 강남구와 같이 각종 일자리, 상권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낮 시간대(08시부터 18시까지)에 매우 많은 규모의 청년 인구가 몰리는 것과 상당히 대조됨.
- 이러한 모습은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확인이 됨.
-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08시부터 18시까지)에 청년 인구의 감소가 평일보다 완화됨.
- 평일보다는 많은 규모의 청년 인구가 관악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말에 관악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이들의 시간 사용, 공간 사용, 소비 콘텐츠 등이 무엇인지 확인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말에는 낮 시간대(08시부터 18시까지)에 관악구를 떠나지 않고 관악구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면, 집 안에 있기를 선호하는지, 좁은 집에서 나와 넓은 공간으로 가기를 선호하는지, 그 넓은 공간은 어디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 이렇게 파악된 내용은 문화서비스를 기획하는 데에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 전체적인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간에 뚜렷한 차이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4) 관악구에는 두가지 유형의 행정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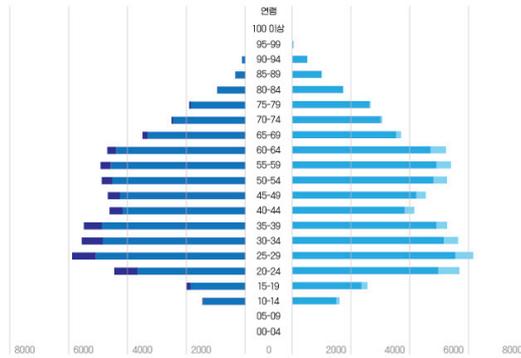
Type 1. 전국/서울특별시 유형 (항아리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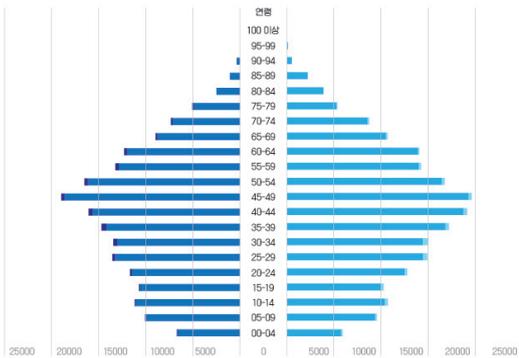
<그림 25> 2020년 청림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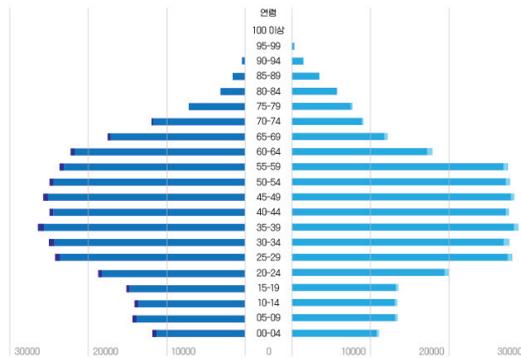
<그림 26> 2020년 난향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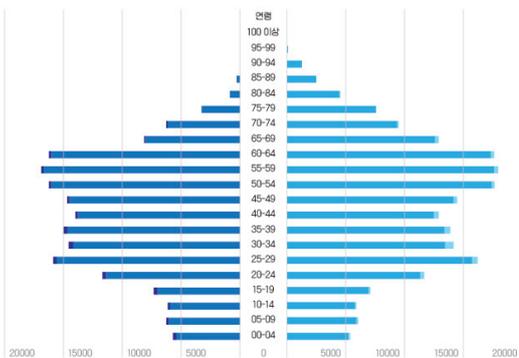
<그림 27> 2020년 은천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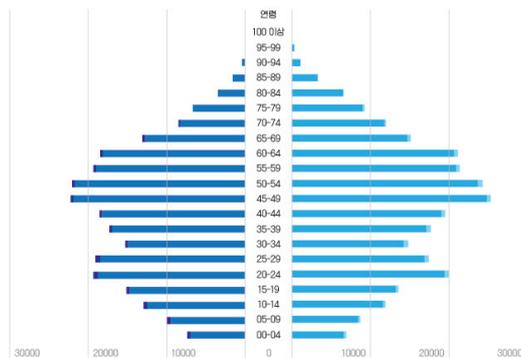
<그림 28> 2020년 성현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29> 2020년 난곡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30> 2020년 삼성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31> 2020년 미성동 인구피라미드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1) 청림동

- 청림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5,09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청림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향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1번째로 많으며 향아리 모양을 가진 다른 동들에 비해 특히 0세~9세 영유아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임.
- 그에 비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0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만 20세에서 24세까지의 인구가 관악구의 21개 동 중에 그 수가 가장 적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803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1,008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1,207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약 1,365명임.
- 청림동의 20대 인구는 1,811명으로 전체 청림동 인구 중 약 12%를 차지하며 청림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20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청림동의 30대 인구는 2,572명으로 전체 청림동 인구 중 약 17%를 차지하며 청림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20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청림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4,383명으로 전체 청림동의 인구 중 약 29%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7번째로 높음.

(2) 난향동

- 난향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5,208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0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난향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향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58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8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3,481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만 20세에서 24세까지의 인구가 관악구의 21개 동 중에 그 수가 가장 적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806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823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79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약 1,062명임.
- 난향동의 20대 인구는 1,629명으로 전체 난향동 인구 중 약 11%를 차지하며 난향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 난향동의 30대 인구는 1,852명으로 전체 난향동 인구 중 약 12%를 차지하며 난향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 난향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3,481명으로 전체 난향동의 인구 중 약 23% 정도 수준이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가장 낮음.

(3) 은천동

- 은천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33,81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은천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항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4,662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0,95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7번째로 많음.
- 특히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여성 인구가 1,779명이며 은천동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806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823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79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약 1,062명임.
- 은천동의 20대 인구는 5,497명으로 전체 은천동 인구 중 약 16%를 차지하며 은천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은천동의 30대 인구는 5,453명으로 전체 은천동 인구 중 약 16%를 차지하며 은천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은천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0,950명으로 전체 은천동의 인구 중 약 32%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5번째로 높음.

(4) 성현동

- 성현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9,228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성현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항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4,81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7,657명으로 관악구 21개동 중에서 16번째로 많음.
- 만 45세에서 49세까지의 인구가 2,688명이며 성현동의 다른 연령대 인구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808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1,975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1,77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104명임.
- 성현동의 20대 인구는 3,783명으로 전체 성현동의 인구 중 약 13%를 차지하며 성현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7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성현동의 30대 인구는 3,874명으로 성현동 전체 인구 중 약 13%를 차지하며 성현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3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성현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7,657명으로 전체 성현동의 인구 중 약 26%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9번째로 높음.

(5) 난곡동

- 난곡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7,311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6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난곡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향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3,197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4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7,886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5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361명이며 향아리 모양을 가진 다른 동에 비해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난곡동의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777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361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1,92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828명임.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 인구수의 순위는 높은 편이지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 인구수의 순위는 대체로 저조함.
- 난곡동의 20대 인구는 4,138명으로 전체 난곡동의 인구 중 약 15%를 차지하며 난곡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난곡동의 30대 인구는 3,748명으로 전체 난곡동 인구 중 약 14%를 차지하며 난곡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난곡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7,886명으로 전체 난곡동의 인구 중 약 29%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8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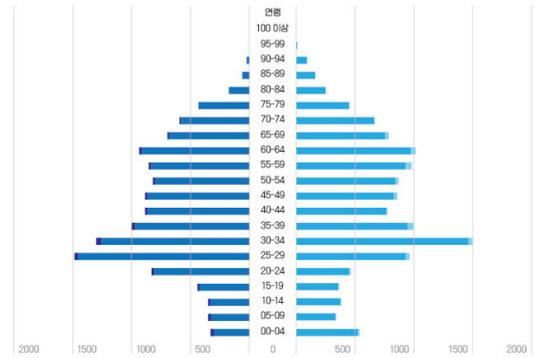
(6) 삼성동

- 삼성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3,003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삼성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향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38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2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5,488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9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618명이며 비슷한 다른 연령대(만 0세에서 만 24세, 만 30세에서 만 44세)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237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1,618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1,289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344명임.
- 삼성동의 20대 인구는 2,855명으로 전체 삼성동의 인구 중 약 12%를 차지하며 삼성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9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삼성동의 30대 인구는 2,633명으로 전체 삼성동 인구 중 약 11%를 차지하며 삼성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9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삼성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5,488명으로 전체 삼성동의 인구 중 약 24%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0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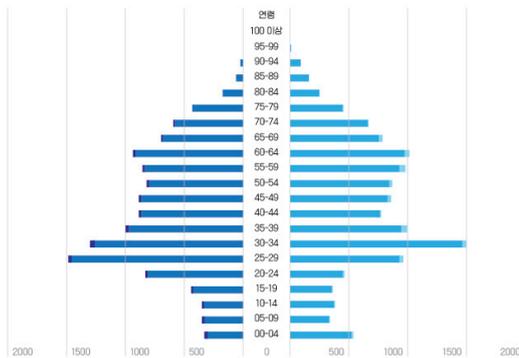
(7) 미성동

- 미성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30,902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3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미성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이 관측되지 않고 항아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3,96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3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9,10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1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800명이며 미성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961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800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185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159명임.
- 만 20세에서 만 25세까지의 인구수가 다른 연령대의 인구수에 비해 저조함.
- 미성동의 20대 인구는 4,761명으로 전체 미성동의 인구 중 약 15%를 차지하며 미성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미성동의 30대 인구는 4,344명으로 전체 미성동 인구 중 약 14%를 차지하며 미성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미성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9,105명으로 전체 미성동의 인구 중 약 29%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6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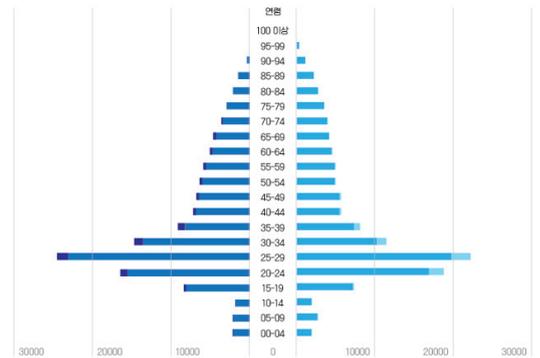
Type 2.
관악구 유형
(UFO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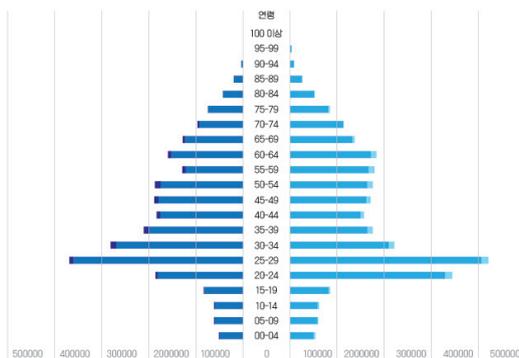
<그림 32> 2020년 보라매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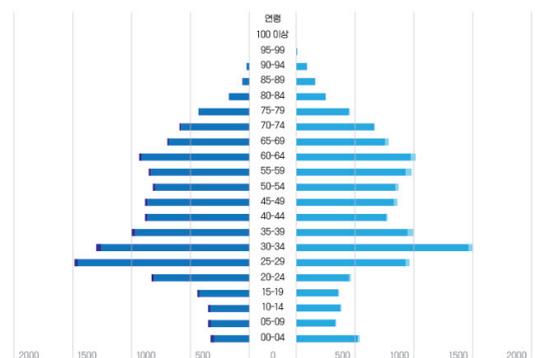
<그림 33> 2020년 행운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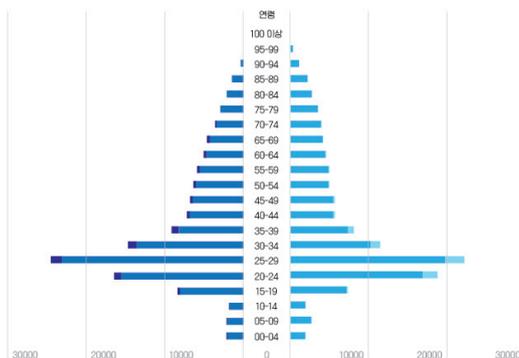
<그림 34> 2020년 낙성대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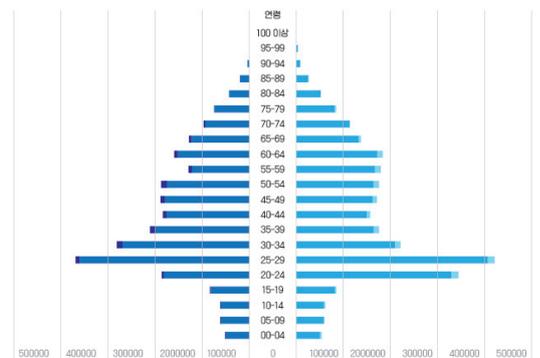
<그림 35> 2020년 중앙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36> 2020년 인현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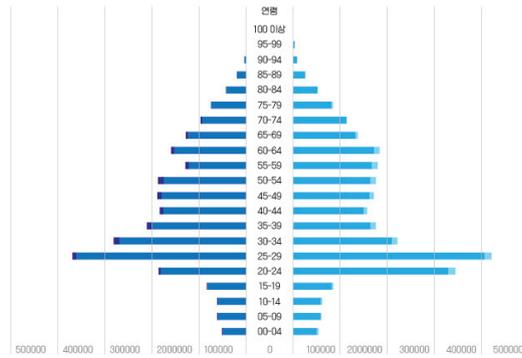
<그림 37> 2020년 남현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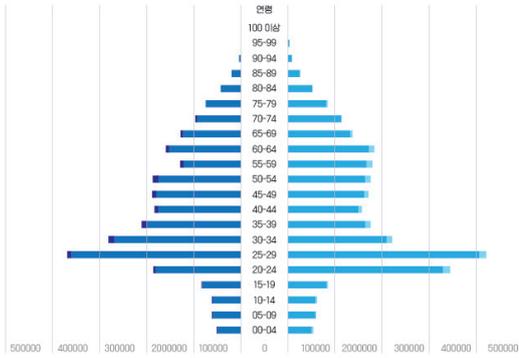
<그림 38> 2020년 서원동 인구피라미드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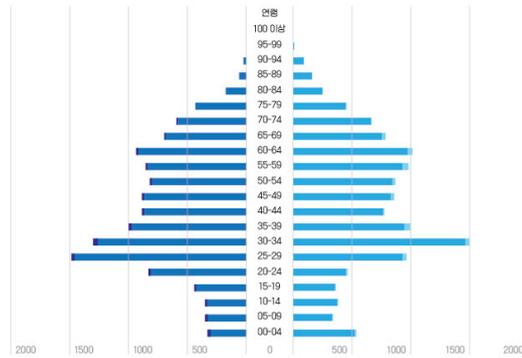
Type 2.
관악구 유형
(UFO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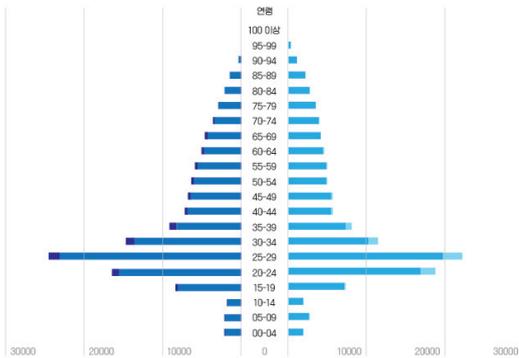
<그림 39> 2020년 신원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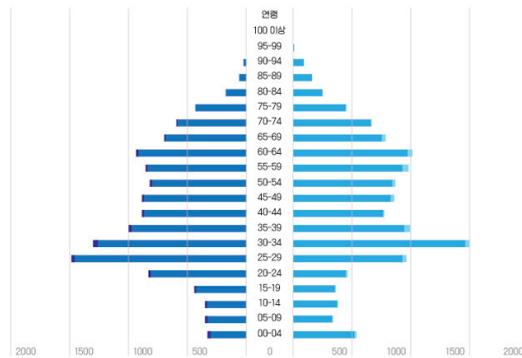
<그림 40> 2020년 서원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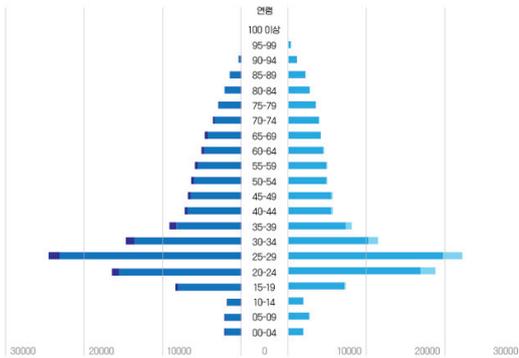
<그림 41> 2020년 신사동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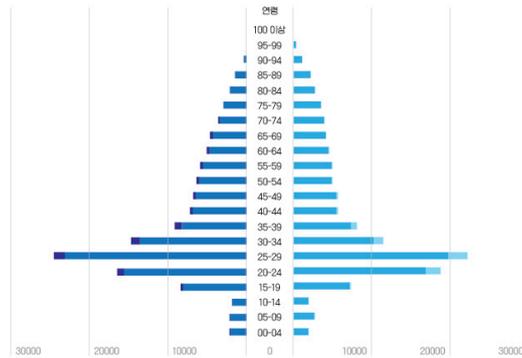
<그림 42> 2020년 신림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43> 2020년 조원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44> 2020년 대학동 인구피라미드



<그림 45> 2020년 청룡동 인구피라미드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1) 보라매동

- 보라매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4,55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9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보라매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69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6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8,87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2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996명이며 보라매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라매동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더 높은 비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735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996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29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854명임.
- 보라매동의 20대 인구는 4,731명으로 전체 보라매동의 인구 중 약 19%를 차지하며 보라매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보라매동의 30대 인구는 4,144명으로 전체 보라매동의 인구 중 약 17%를 차지하며 보라매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보라매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8,875명으로 전체 보라매동의 인구 중 약 36%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4번째로 높음.

(2) 행운동

- 행운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9,334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행운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577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9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3,887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3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5,273명으로 행운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운동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552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5,273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3,688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374명임.
- 행운동의 20대 인구는 7,825명으로 전체 행운동의 인구 중 약 27%를 차지하며 행운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행운동의 30대 인구는 6,062명으로 전체 행운동의 인구 중 약 21%를 차지하며 행운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행운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3,887명으로 전체 행운동의 인구 중 약 47%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7번째로 높음.

(3) 낙성대동

- 낙성대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1,56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5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낙성대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54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0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2,512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4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30세까지의 인구가 8,391명으로 낙성대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낙성대동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3,573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4,818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567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554명임.
- 낙성대동의 20대 인구는 8,391명으로 전체 낙성대동의 인구 중 약 39%를 차지하며 낙성대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낙성대동의 30대 인구는 4,121명으로 전체 낙성대동의 인구 중 약 19%를 차지하며 낙성대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낙성대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2,512명으로 전체 낙성대동의 인구 중 약 58%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음.

(4) 중앙동

- 중앙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5,426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9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중앙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032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0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7,597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7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994명이며 중앙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25세에서 29세까지의 여성 인구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555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994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1,947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101명임.
- 중앙동의 20대 인구는 4,549명으로 전체 중앙동의 인구 중 약 29%를 차지하며 중앙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3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중앙동의 30대 인구는 3,048명으로 전체 중앙동의 인구 중 약 20%를 차지하며 중앙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8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중앙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7,597명으로 전체 중앙동의 인구 중 약 49%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4번째로 높음.

(5) 인현동

- 인현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5,803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8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인현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693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7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0,911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8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3,797명이며 인현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194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3,797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884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036명임.
- 인현동의 20대 인구는 5,991명으로 전체 인현동의 인구 중 약 23%를 차지하며 인현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8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현동의 30대 인구는 4,920명으로 전체 인현동의 인구 중 약 19%를 차지하며 인현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인현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0,911명으로 전체 인현동의 인구 중 약 42%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9번째로 높음.

(6) 남현동

- 남현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7,85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남현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77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5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7,48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8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544명이며 남현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327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544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097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521명임.
- 남현동의 20대 인구는 3,871명으로 전체 남현동의 인구 중 약 22%를 차지하며 남현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8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남현동의 30대 인구는 3,618명으로 전체 남현동의 인구 중 약 20%를 차지하며 남현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남현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7,489명으로 전체 남현동의 인구 중 약 42%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0번째로 높음.

(7) 서원동

- 서원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2,994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서원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502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8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1,183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6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4,360명이며 서원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남성 인구가 동일 연령의 여성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123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4,360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779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921명임.
- 서원동의 20대 인구는 6,483명으로 전체 서원동의 인구 중 약 28%를 차지하며 서원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8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서원동의 30대 인구는 4,700명으로 전체 서원동의 인구 중 약 20%를 차지하며 서원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서원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1,183명으로 전체 서원동의 인구 중 약 49%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5번째로 높음.

(8) 신원동

- 신원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9,223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7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신원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47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9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8,002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3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942명이며 신원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564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942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051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445명임.
- 신원동의 20대 인구는 4,506명으로 전체 신원동의 인구 중 약 23%를 차지하며 신원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원동의 30대 인구는 3,496명으로 전체 신원동의 인구 중 약 18%를 차지하며 신원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7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원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8,002명으로 전체 신원동의 인구 중 약 42%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1번째로 높음.
- 신원동은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음, 특히 만 55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9) 서림동

- 서림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3,42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1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서림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90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4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0,534명으로 관악구 21개동 중에서 10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3,752명이며 서림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037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3,752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74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005명임.
- 서림동의 20대 인구는 5,789명으로 전체 서림동의 인구 중 약 25%를 차지하며 서림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서림동의 30대 인구는 4,745명으로 전체 서림동의 인구 중 약 20%를 차지하며 서림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7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서림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0,534명으로 전체 서림동의 인구 중 약 45%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8번째로 높음.

(10) 신사동

- 신사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6,454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신사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141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3번째로 많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0,65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9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3,879명이며 신사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167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3,789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645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959명임.
- 신사동의 20대 인구는 6,046명으로 전체 신사동의 인구 중 약 23%를 차지하며 신사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7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사동의 30대 인구는 4,604명으로 전체 신사동의 인구 중 약 17%를 차지하며 신사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사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0,650명으로 전체 신사동의 인구 중 약 40%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3번째로 높음.
- 신사동은 연령대 전반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음, 특히 만 25세에서 만 69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외국인 수가 타 동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11) 신림동

- 신림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2,32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4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신림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859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가장 적음.
- 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4,236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2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5,903명이며 신림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538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5,903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3,700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095명임.
- 신림동의 20대 인구는 8,441명으로 전체 신림동의 인구 중 약 38%를 차지하며 신림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림동의 30대 인구는 5,795명으로 전체 신림동의 인구 중 약 26%를 차지하며 신림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림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4,236명으로 전체 신림동의 인구 중 약 64%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가장 높고 젊은 곳 임.

(12) 조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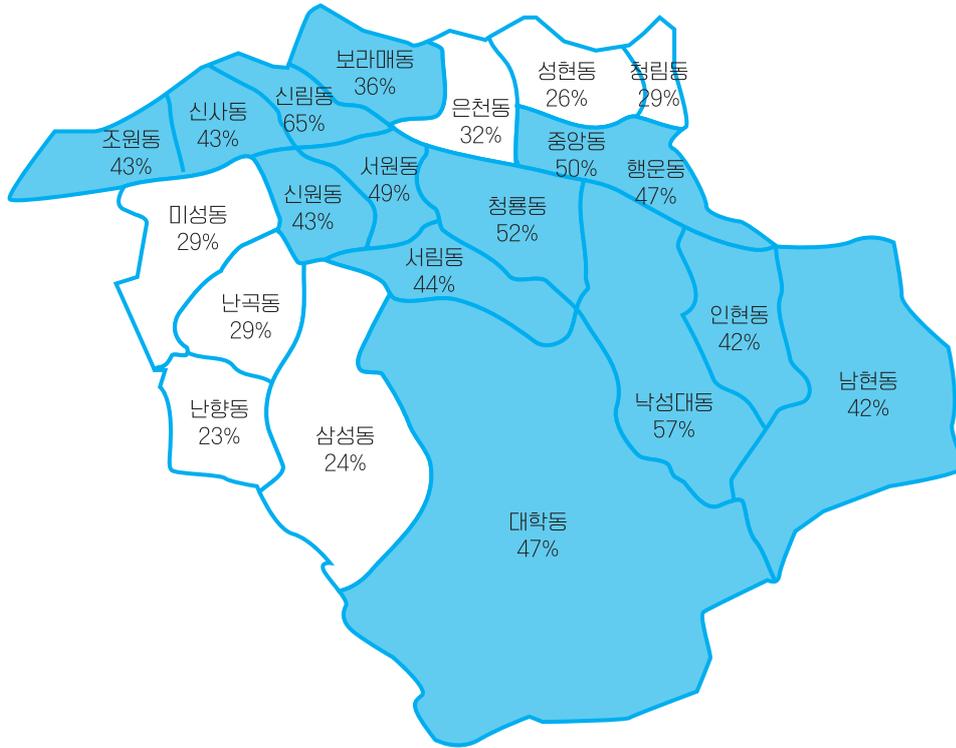
- 조원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9,553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6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짐.
- 조원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597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7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7,901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4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2,914명이며 조원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1,314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2,914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134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1,539명임.
- 조원동의 20대 인구는 4,228명으로 전체 조원동의 인구 중 약 22%를 차지하며 조원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조원동의 30대 인구는 3,673명으로 전체 조원동의 인구 중 약 19%를 차지하며 조원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1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조원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7,901명으로 전체 조원동의 인구 중 약 40%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2번째로 높음.
- 조원동은 연령대 전반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음, 특히 만 25세에서 만 69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외국인 수가 타 동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13) 대학동

- 대학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23,656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0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대학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1,685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16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1,40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5번째로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4,146명이며 대학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현저히 많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2,360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4,146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2,866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028명임.
- 대학동의 20대 인구는 6,506명으로 전체 대학동의 인구 중 약 28%를 차지하며 대학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대학동의 30대 인구는 4,894명으로 전체 대학동의 인구 중 약 21%를 차지하며 대학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대학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1,400명으로 전체 대학동의 인구 중 약 48%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6번째로 높음.

(14) 청룡동

- 청룡동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35,927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청룡동의 인구피라미드는 관악구 전체의 인구피라미드 형태인 UFO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0세에서 만 19세까지 영유아, 학령기 및 청소년은 2,926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5번째로 많음.
-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8,550명으로 관악구 21개 동 중 가장 많음.
-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7,486명이며 청룡동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음.
- 만 20세에서 만 24세 인구는 4,161명, 만 25세에서 만 29세 인구는 약 7,486명, 만 30세에서 만 34세 인구는 약 4,225명, 만 35세에서 만 39세 인구는 2,687명임.
- 청룡동의 20대 인구는 11,647명으로 전체 청룡동의 인구 중 약 32%를 차지하며 청룡동의 2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청룡동의 30대 인구는 6,903명으로 전체 청룡동의 인구 중 약 19%를 차지하며 청룡동의 30대 인구수는 관악구 21개 동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청룡동의 20대와 30대를 함께 보면 18,550명으로 전체 청룡동의 인구 중 약 52%에 달하며 이 비율은 관악구 21개 동 중에서 3번째로 높음.



<그림 46> 관악구 행정동별 인구피라미드 유형 구분

- 관악구에 20대와 30대 청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악구의 모든 동에 청년들이 분산 분포된 것은 아님.
- 관악구 내 전체 21개 동 중, 7개 동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항아리형 모양의 인구 연령 분포를 갖고, 나머지 14개 동에 청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
- 위의 지도는 각 동별 전체 인구 대비 20대와 30대 인구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지도를 살펴보면, 특히 지하철 2호선 라인 주변 3개 동(낙성대동, 청룡동, 신림동)에 청년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구로구와 인접한 2개 동(신사동, 조원동)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았음을 앞선 각 동별 인구 피라미드에서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40대와 50대에 집중되어 있음.
- 각 동별 인구의 연령 및 국적을 살펴보았을 때, 관악구 내에 문화서비스 니즈에 다양성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
- 특정 동에 40대와 50대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고 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 서비스를 당장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2. 관악구 주요 가구 살펴보기

전출지	전입지	2015	2020
관악구	서울	51%	46%
	인천/경기	30%	30%
	그 외 지역	19%	25%
마포구	서울	60%	55%
	인천/경기	26%	27%
	그 외 지역	14%	18%
서대문구	서울	59%	56%
	인천/경기	27%	26%
	그 외 지역	14%	18%

<표 3> 2015, 2020년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전출자별 전입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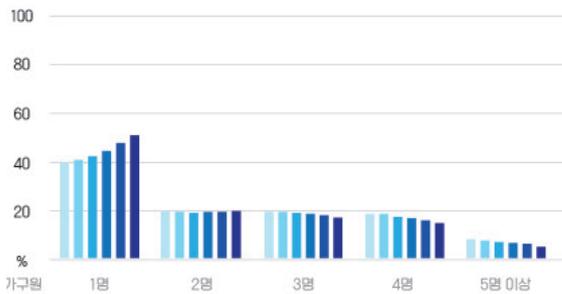
1) 관악구 내 청년 인구는 어디로 전출하나?

- 관악구를 떠나는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인구이 동통계 데이터를 확인하여 봄.
- 해당 자료는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청년 중 각 지역 밖으로 전출한 청년들을 전입지에 따라 서울 내 다른 구, 인천/경기권,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자료임.
- 2020년을 살펴본 결과, 관악구가 마포구, 서대문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역으로 전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관악구에서 밖으로 전출하는 인구 중 19%가 지역으로 전출하는 데에 반해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14%에 그쳤음.
- 지역에서 온 청년이 많은 만큼 지역으로 나가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밖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관악구가 마포구와 서대문구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음.
- 2020년 기준으로, 관악구에서 인천/경기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의 비중은 전체 전출자 중 30% 수준이었는데,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27%, 26%로 이에 못 미치는 정도를 보임.
- 2015년 데이터를 확인하여 본 결과 이러한 경향은 최근뿐만 아니라 5년 전에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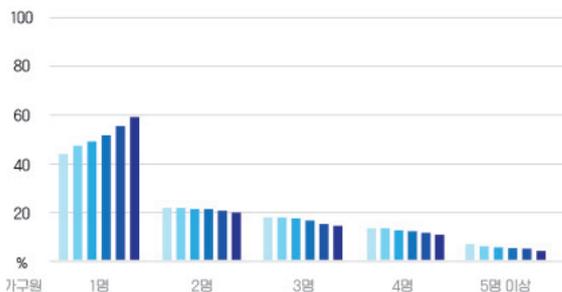
2) 관악구 내 청년 가구주의 가구는 어떤 형태로 살고 있나?



<그림 47> 관악구 2015-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그림 48> 전국 2015-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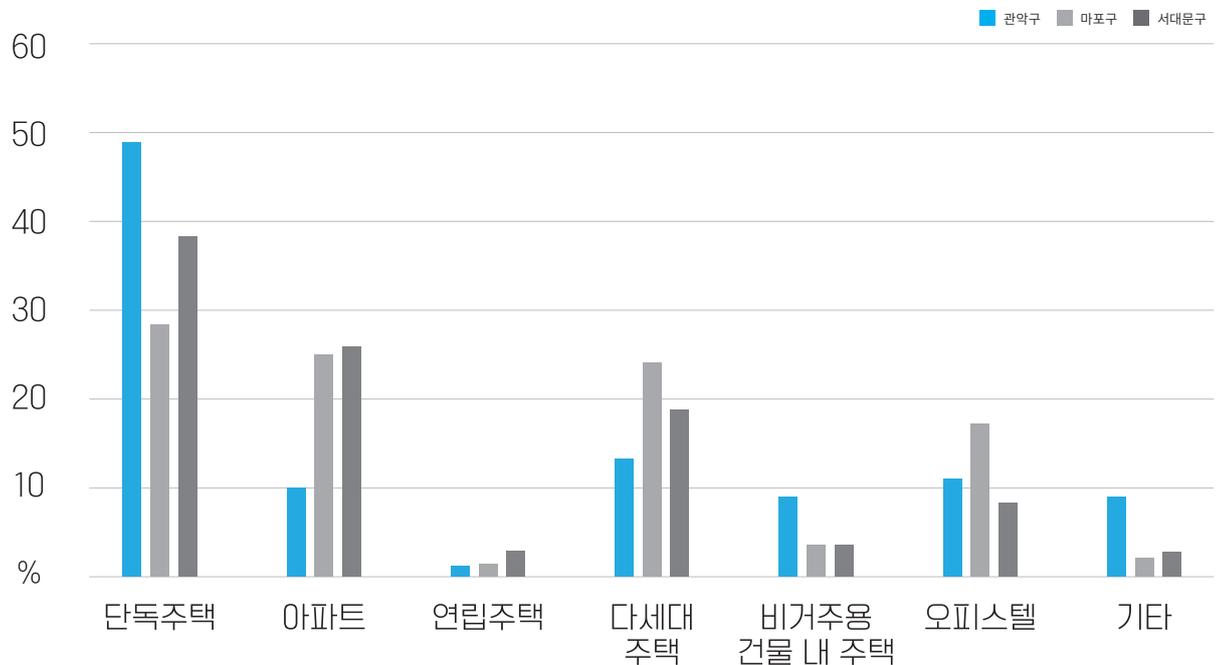


<그림 49> 서울시 2015-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 관악구 내 청년은 어떤 가구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 총조사 자료를 살펴봄.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관악구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이 가구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를 살펴봄.
- 가구원 수가 1명인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가 2명인 2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음.
-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인 가구 비중에 비해 매우 적었으나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모습 또한 나타남.
- 이렇게 관악구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은 과반 이상의 대다수가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과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도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상이함. 전국은 1인 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0년 기준 약 50%에 달하게 되었고 서울시는 1인 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0년 기준 약 60%를 기록하게 됨.
- 이처럼 전국과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약 80%에 육박한 관악구의 수준에는 매우 못 미침.
- 반면 2인 가구의 비율은 관악구가 서울시 혹은 전국보다도 낮음.
- 일반적으로 청년 인구가 가구주인 2인 가구는 부부 가구인데, 관악구는 혼인한 부부 가구가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곳으로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함.

3) 관악구 내 청년 가구는 어디에 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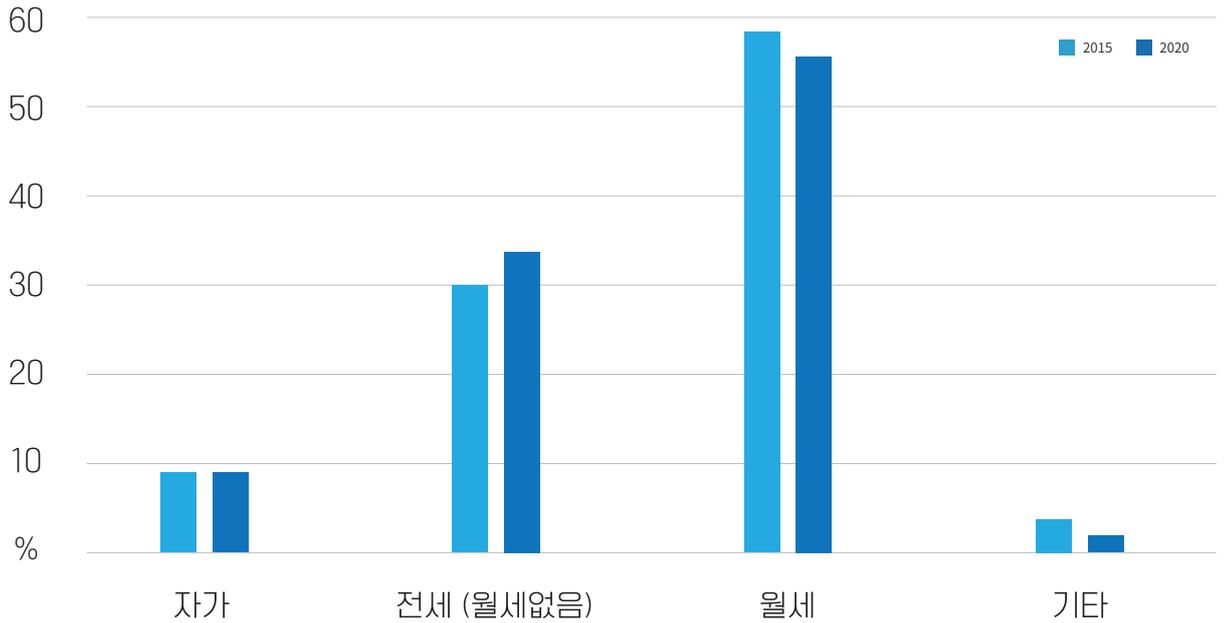
- 20세부터 39세의 청년 인구가 어떤 유형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의 서쪽에서 청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세 개 구를 비교하여 봄.
- 그 결과 관악구 청년 인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약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청년 인구의 혼한 거주 모습을 상상하여 보면 이는 다소 생소한 상황임.
- 대개 젊은 청년 인구의 거주 모습으로는 1인 가구로 월세를 내며 원룸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음.
- 위의 통계치는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아 집계된 것이 아닌, 조사 자료와 행정적 자료를 결합하여 도출된 것임.
- 따라서 두 자료의 결합 과정에서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음.
-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를 통해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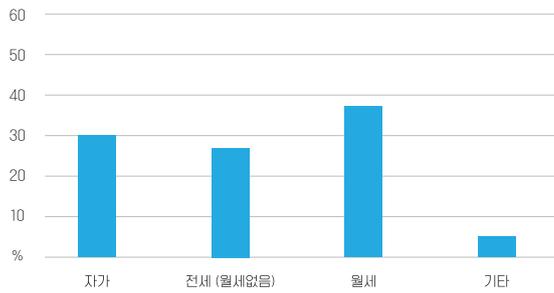
<그림 50> 2020년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청년 가구주 가구 거처 종류 분포

4) 관악구 내 청년 가구는 어떻게 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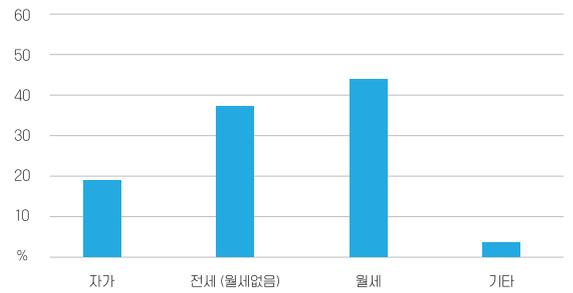
- 관악구 내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가 어떤 점유 유형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살펴봄.
- 최근 역동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악구의 경우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의 데이터를 확인함.
- 관악구 내 청년 인구는 과반 넘는 인구가 월세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는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자가, 기타 순이었음.
- 최근 5년 동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소폭 상승함.
- 이처럼 다소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뚜렷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변화가 아니기에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보다 월세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우세함에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 있음.
- 청년들에게 거주지로서 관악구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음.
- 관악구는 청년 인구가 1인 가구로 월세를 내며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경제력이 나아지면 떠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추후 서울시 내 구별 월세 금액 등 거주 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청년 인구에게 관악구가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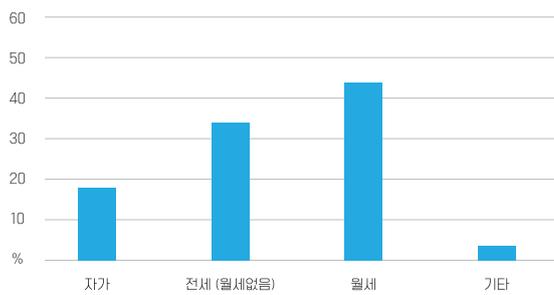
<그림 51> 관악구 2015,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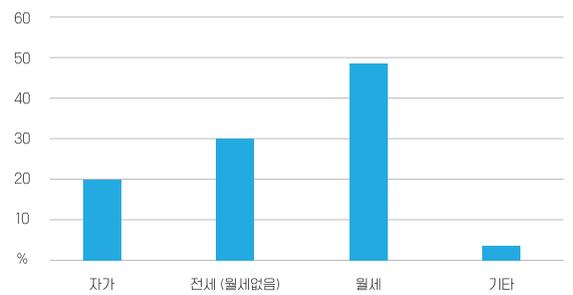
<그림 52> 전국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그림 53> 서울특별시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그림 54> 마포구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점유 유형 분포



<그림 55> 서대문구 2020년 청년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별 분포

5) 관악구 내 청년 가구는 어떤 이유로 전입하나?

전입 사유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직업	50%	37%	28%	46%
가족	13%	19%	18%	20%
주택	16%	23%	28%	20%
교육	11%	8%	14%	4%
주거환경	5%	18%	6%	6%
자연환경	0%	0%	0%	0%
기타	5%	3%	5%	5%
계	100%	100%	100%	100%

<표 4>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외부 전입자 전입 사유
(2020년 기준)

- 관악구 외부에서 관악구로 전입하는 20세에서 39세 청년은 어떤 이유에서 전입했을까?
-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년 자료를 살펴보았음.
- 관악구 밖의 청년 인구가 관악구로 전입하면서 가장 많이 응답한 전입 사유는 “직업”으로, 50% 정도 수준임.
- 관악구에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해 전입했다고 보기보다, 직업을 새로 얻으면서 거주지를 찾게 되어 관악구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이는 청년 인구가 많이 찾는 또 다른 곳인 마포구 및 서대문구와는 다른 모습임.
- 오히려 “직업”을 이유로 전입하는 관악구의 모습은 강남구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앞서 지역 청년들의 이주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함께 생각해보면, 지역 청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찾는 거주지가 관악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IV. 제언

-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키워드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키워드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첫 번째 유형>

압도적인 청년인구, 향아리형과 UFO형으로 나뉘는 동별 인구구조, 서울 전입 지역청년의 Destination, 청년들의 생활지가 아닌 거주지

<두 번째 유형>

1인 가구일 때 관악 거주 후
결혼 및 출산 시 전출,
자가로 내 집이기 보다는 월세로 거주.

- 위 두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나열된 키워드들만 보면 관악구는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청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휴식처와 같은 곳을 떠올릴 수 있음.
- 하지만 두 번째 유형에 나열된 키워드들만 보면 관악구는 경제적인 자원이 없는 청년들이 잠시 머물다가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름.
- 관악구에 거주하던 청년이 관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님. 청년 인구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 자체가 관악을 더 젊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지만 관악구는 비록 정주하는 청년 인구가 많은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님은 확실한 사실임.
- 관악구에 정주하는 기간은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관악구에 머물 때 관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관악을 떠날 때 최소한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악구의 과제가 될 것.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혹은 건강관련 행위의 결정 요소를 파악하는 보건학에서는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특성들이 개인이 지닌 인구 학적 혹은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독립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밝혀왔음.
-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참조)

01

지역사회 특성은 크게 사회적 조건(social environments), 물리적 조건(physical environments), 그리고 서비스 조건(service environments)로 구분됨.

02

사회적 조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 특성들의 총합으로, 어떤 지역에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당연히 높게 됨. 그러므로 사회적 조건은 다분히 조성(compositional)적인 특성임.

03

서비스 조건은 공공 행정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양, 질, 그리고 접근성임. 예컨대 지역 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교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됨.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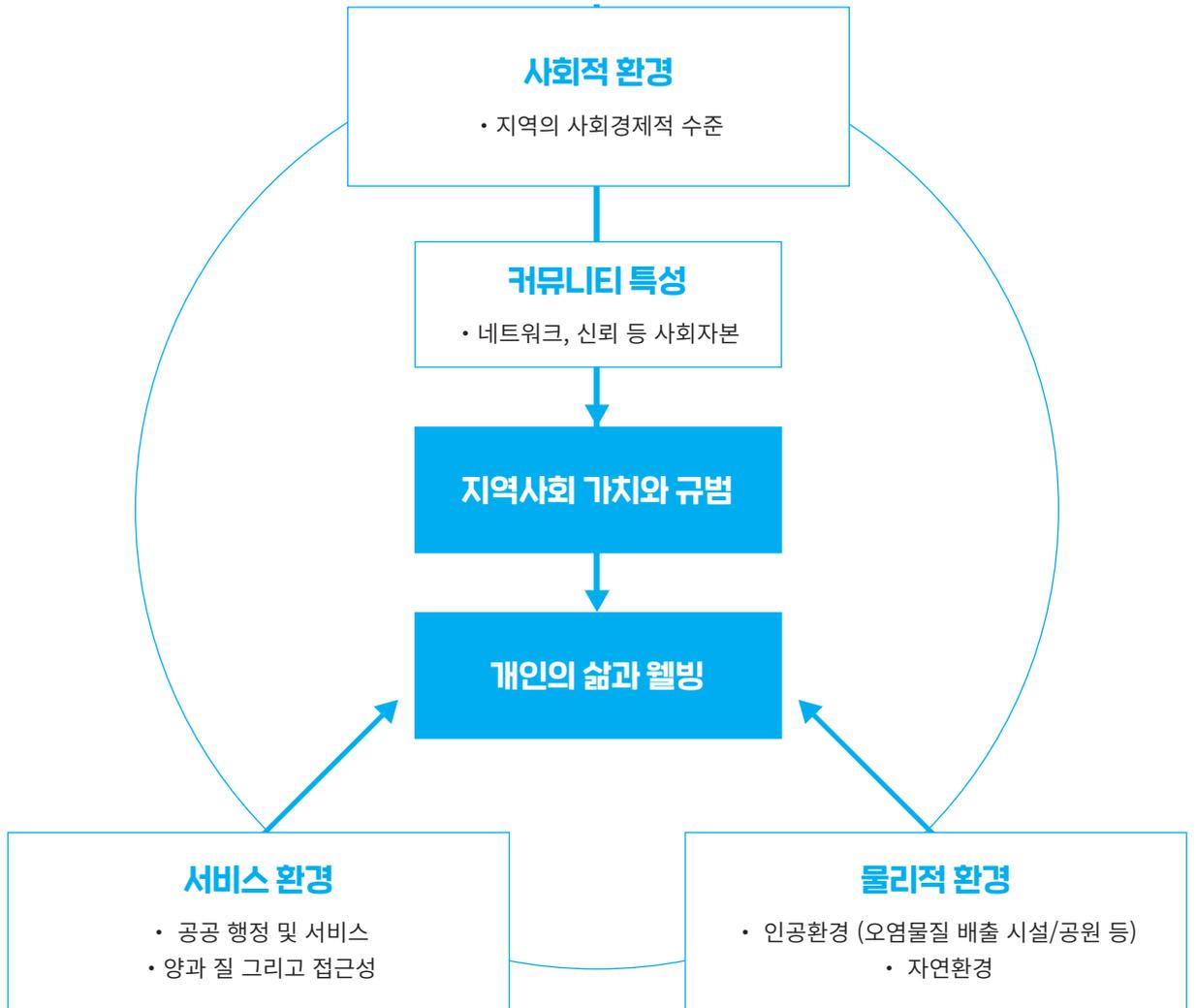
물리적 조건은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공 혹은 자연 시설이 나 환경을 의미함. 인공 시설은 조성된 공원,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공장 등의 시설, 관악산과 같은 자연 환경 등을 포함함.

05

이들 중 특히 사회적 조건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나 네트워크 등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라 알려진 특성들에 영향을 주게 됨.

06

결국 사회적 조건, 서비스 조건, 물리적 조건, 그리고 사회자본이 개인의 건강이나 건강관련 행위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특성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함.



<그림 56> Robert, SA (1998).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on adult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18~37로부터 변형

-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본 연구와 접목이 가능함.
- 즉 관악에 살고 있는 청년인구가 개인의 삶과 웰빙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조건들을 바꾸어 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조건들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특히 지역(관악구)사회가 갖고 있는 조건들로 구분이 가능함.
- 여기서는 개인의 조건들보다는 지역사회 조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 조건들이 관악 청년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면 됨.
- 관악문화재단은 위 지역사회 조건들 가운데 서비스 환경과 가장 관련이 크고, 특히 문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접근성은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금까지도 관악문화재단은 지역사회 주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해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관악구는 청년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그다지 높은 곳이 못되기 때문에, 이는 관악문화재단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문화서비스에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임.
- 이번 연구는 거시적인 인구통계만을 활용한 것이므로 그렇다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내용과 방향, 전달 방법은 어떠한지 등을 밝혀내지는 못했음.
- 하지만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관악문화재단은 앞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관악구는 여전히 청년들이 찾는 곳이고, 청년들이 관악에서 기반을 다지고 살 수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더라도 관악에서의 기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관악문화재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관악구의 문화 서비스 방향을 제시함.
 - 압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의 주된 대상이 됨.
 - 동 별로 인구특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관악 이주 청년들의 지역적 배경이 다양하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겠음.
 - 관악 청년들의 주말 관악구 내 머무름에 문화적 조력자 역할 수행.
 - 관악구 1인 가구 청년들의 공간 확장성이 가능한 문화 서비스 발굴.
 - 비록 본 연구는 관악에 이주해서 들어 온 청년 인구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관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서비스 니즈도 파악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서비스 발굴 및 제공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V. 참고문헌

- Robert, S. (1998).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on Adult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1), 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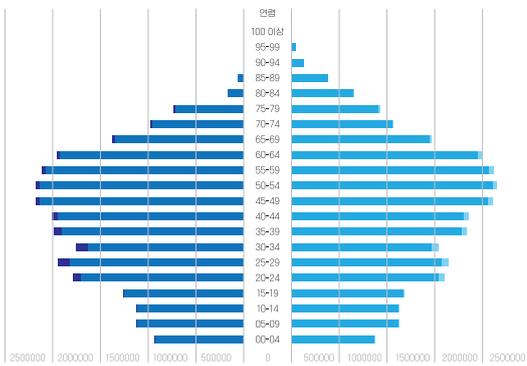
부록

STE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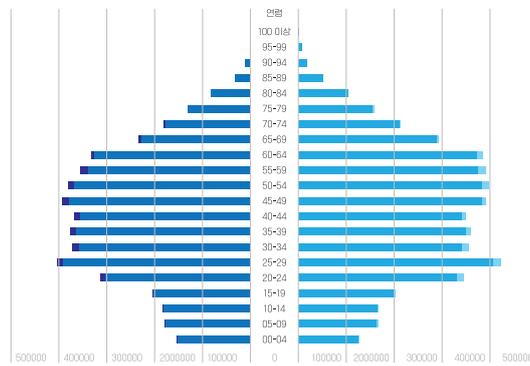
서울 속 관악구 살펴보기

01

전국과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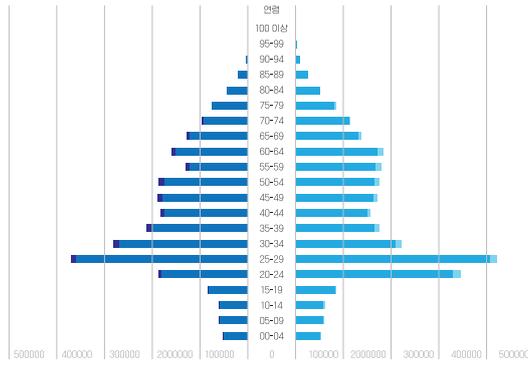


전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UFO가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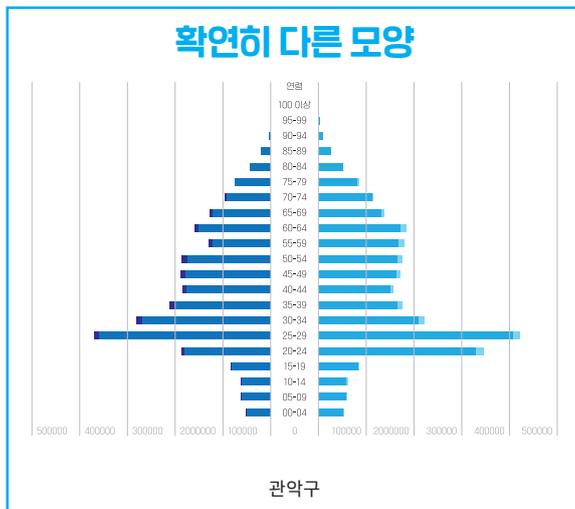
관악구

- 전체 인구: 약 503,000명
- 20대 인구: 약 113,500명 (약 22.6%)
- 2030 인구: 약 202,700명 (약 40.3%)
 - 20~24세: 약 41,700명
 - 25~29세: 약 71,800명
 - 30~34세: 약 50,600명
 - 35~39세: 약 38,600명

2020년 인구총조사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함께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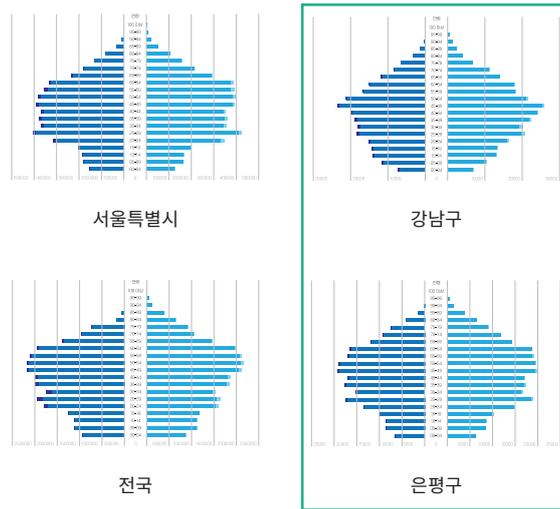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전국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함께 보면...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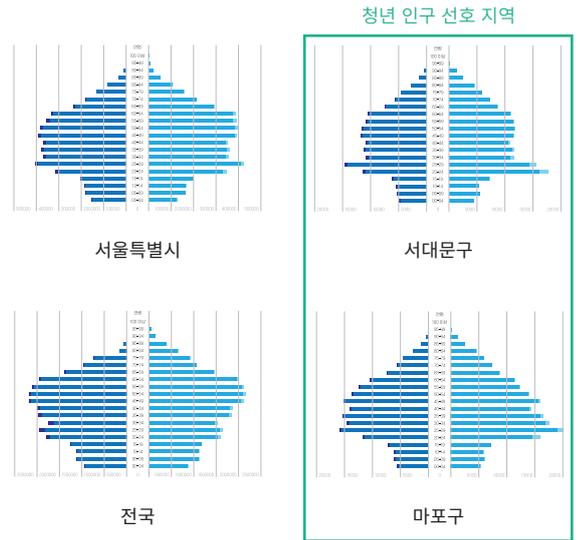
그렇다면 청년 인구가 선호하는 다른 지역은?

행정구역별(읍면동)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39세 총인구(%)									
종로구	34.5%	36.8%	38.2%	40.3%	40.0%	37.4%	35.9%	33.3%	32.1%	32.3%
중구	35.5%	37.8%	39.6%	41.5%	41.0%	39.2%	37.6%	34.3%	32.4%	34.0%
용산구	34.8%	37.1%	38.5%	40.2%	41.3%	38.9%	37.3%	35.3%	31.6%	33.0%
성동구	35.8%	38.1%	40.8%	43.2%	43.6%	40.4%	38.9%	35.2%	33.0%	33.4%
광진구					43.1%	41.2%	39.7%	37.5%	35.4%	35.5%
동대문구	35.7%	37.7%	40.0%	41.3%	42.1%	39.2%	38.0%	35.0%	33.4%	34.0%
중랑구				40.9%	41.5%	37.7%	35.5%	32.3%	30.3%	29.4%
성북구	35.3%	36.9%	38.4%	39.9%	41.4%	38.4%	37.0%	34.2%	31.4%	31.0%
강북구					41.2%	38.0%	35.4%	31.6%	28.3%	27.1%
도봉구	35.6%	36.7%	38.0%	40.1%	39.5%	35.3%	33.4%	30.3%	28.0%	26.2%
노원구				41.4%	38.0%	35.6%	33.6%	30.3%	28.2%	26.8%
은평구		35.7%	36.4%	38.3%	40.5%	37.1%	35.4%	31.5%	29.1%	28.4%
서대문구	34.8%	35.8%	37.6%	40.3%	42.0%	39.5%	37.6%	34.3%	32.8%	33.4%
마포구	34.4%	37.4%	39.4%	40.8%	42.4%	41.3%	40.7%	37.9%	35.0%	35.5%
양천구				38.9%	36.9%	35.0%	32.7%	29.1%	27.2%	25.7%
강서구		40.6%	40.9%	40.5%	39.0%	37.1%	36.4%	34.0%	32.2%	32.1%
구로구		40.4%	41.9%	42.9%	41.6%	39.4%	37.4%	34.9%	31.1%	29.0%
금천구					43.8%	39.8%	36.1%	32.7%	30.4%	30.8%
영등포구	37.0%	38.3%	39.6%	41.2%	43.0%	39.9%	38.3%	34.9%	32.2%	33.0%
동작구		37.0%	38.9%	40.7%	42.8%	40.7%	40.7%	38.1%	35.0%	33.9%
관악구	35.0%	36.9%	38.1%	40.2%	43.8%	43.0%	44.5%	42.2%	38.7%	40.3%
서초구				33.2%	36.2%	38.4%	37.1%	33.8%	30.3%	28.0%
강남구	35.1%	38.3%	34.3%	30.7%	34.7%	38.0%	37.8%	35.2%	31.5%	29.0%
송파구				38.2%	38.0%	37.3%	36.0%	33.9%	31.1%	30.6%
강동구		39.4%	40.1%	39.5%	37.4%	35.7%	34.4%	33.1%	30.0%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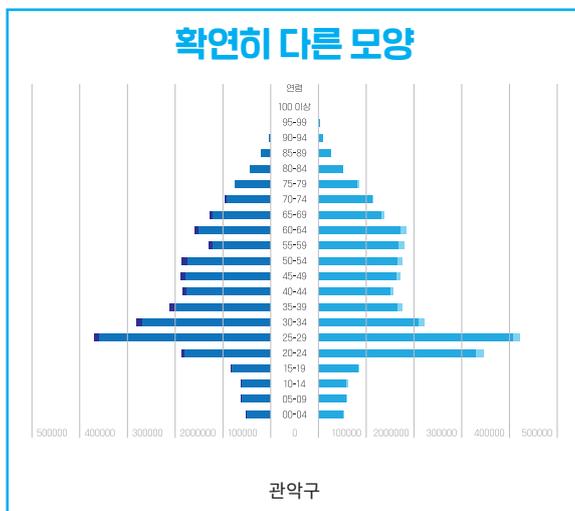
함께 보면...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함께 보면...



■ 내국인 남자 ■ 내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보통 청년이 많으면 밝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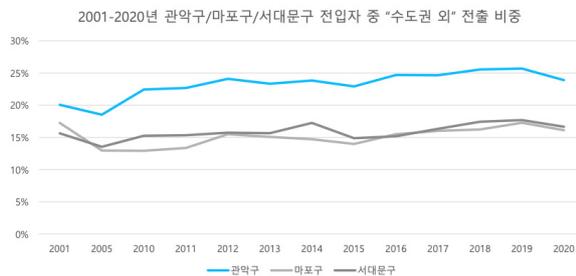
우리 관악구가 서울에서 가장 밝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나요?

관악구의 청년(20~39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전입지	전출지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관악구	서울	66%	68%	63%	62%	61%	62%	61%	62%	60%	59%	58%	58%	59%
	인천/경기	14%	14%	15%	15%	15%	15%	15%	15%	15%	16%	16%	17%	17%
	그 외 지역	20%	19%	22%	23%	24%	23%	24%	23%	25%	25%	26%	26%	24%
마포구	서울	68%	73%	73%	72%	72%	70%	70%	71%	69%	68%	67%	65%	67%
	인천/경기	15%	14%	14%	14%	14%	15%	15%	15%	16%	16%	17%	17%	17%
	그 외 지역	17%	13%	13%	13%	13%	15%	15%	14%	16%	16%	16%	17%	16%
서대문구	서울	69%	73%	70%	71%	69%	70%	68%	71%	70%	68%	66%	65%	66%
	인천/경기	15%	14%	14%	14%	14%	15%	15%	14%	15%	16%	16%	17%	17%
	그 외 지역	16%	14%	15%	15%	15%	16%	16%	15%	15%	16%	17%	18%	17%

09

관악구의 청년(20~39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마포와 서대문은 과거에도 지금도 비수도권이 약 16~17%.
 관악구는 다른 구에 비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비중이 높음.
 과거에 비해 최근에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음.

- 지역 청년들의 서울 이주 시 destination이 되고 있음.
- 관악구 청년들 사이에 출신 지역적 다양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함.

10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서울생활인구데이터"란?

-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제공
- 서울시 내 6000여개 기지국/20000여개의 집계구에서 감지한 KT 통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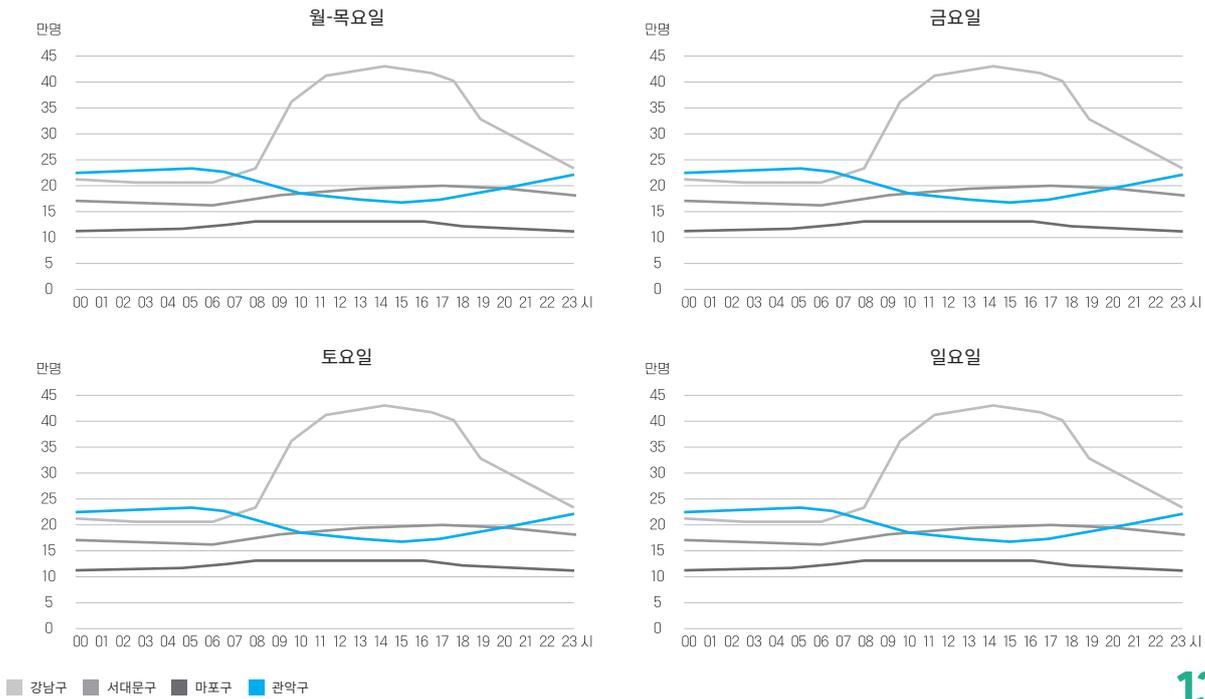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월-목/금/토/일요일에 해당하는 일자 전체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함.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구는 '정주인구'입니다.
- 관악구민 50만 명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주인구'입니다.
- 그런데, 관악구에 살지 않아도 낮에 관악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또 관악구에 정주하고 있지만 낮에는 다른 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런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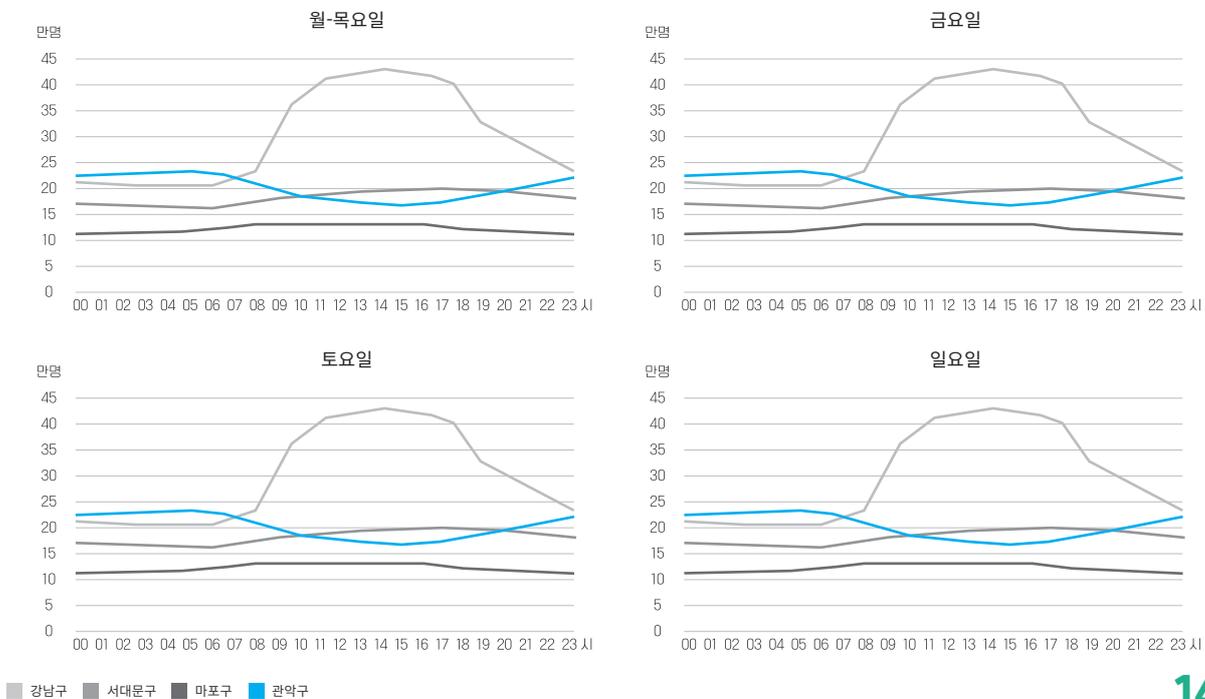
▶ 관악구의 생활인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 이후)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13

(2019년 코로나 이전)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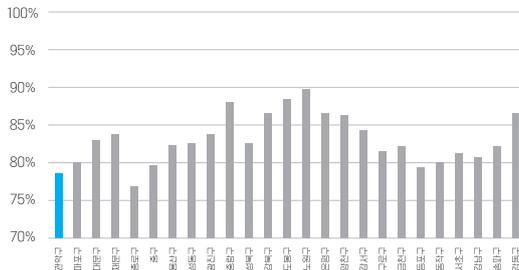
14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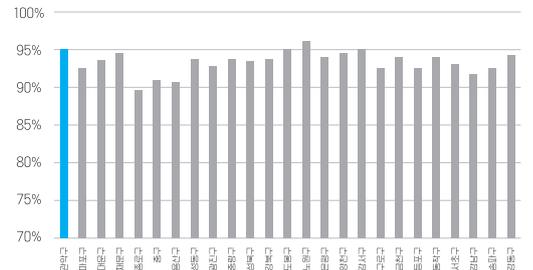
- 청년이 많은 곳 답게 관악구의 생활인구는 낮에 줄고 밤에 늘어남.
- 그런데 주말의 생활인구는 시간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악의 청년들은 주말에 관악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확실한 검증은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을 해야 가능, 예산이 허락한다면 2022년 연구에서)
- 만일 관악의 청년들이 주말을 관악에서 보낸다면, 이들의 시간 사용, 사용되는 공간과 contents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 관악구 청년 거주 공간이 넓지 않다면,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려 할 것. 그런데 관악구에서 그 공간을 찾는다면 그곳이 어디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해야 함.
- 이를 토대로 문화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음.
-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생활 인구의 변화 양상에 큰 차이가 없음.

Q. 1년 전에 지금과 동일한 곳에 거주하셨습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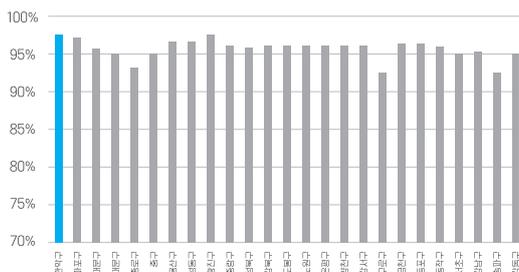
A. 예, 20-39세



A. 예, 40-64세



A.예, 65세이상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
 > 현재 행정구역_시군구
 > 1년 전 거주지 행정구역_시군구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2020년 코로나 이후)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청년이 많이 찾는 관악구
- 지역의 청년은 다른 구보다도 관악 구를 더욱 찾고 있다!
- 이들은 낮 시간을 주로 다른 곳에 서 보내지만, 주말에는 관악에서 머문다.
- 그런데 관악구 청년들은 거주지도 자주 옮긴다!

- ▶ 매우 ‘청년 친화적’인 곳처럼 보여짐. 또 정말로 그래야 할 것 같음!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되고 있음.
(중장년 이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음)

17

(2019년 코로나 이전) 관악구 생활인구의 특징은?

- 청년을 Push-out 하고 있는 원인 요소들을 찾아야 함.
- 열악한 거주 환경?
- 만일 그렇다면, 지역사회(정책영역)가 열악한 거주환경(개인영역)을 보완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야 함.
-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정책(행정), 커뮤니티(사회자본), 공간(녹지, 공원), 소비환경(지역 상권), 문화환경(공간, 서비스,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
- 지역사회 특성들 가운데 어떤 특성이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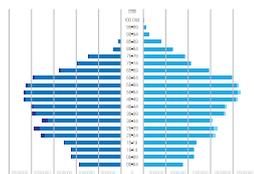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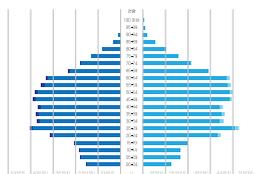
18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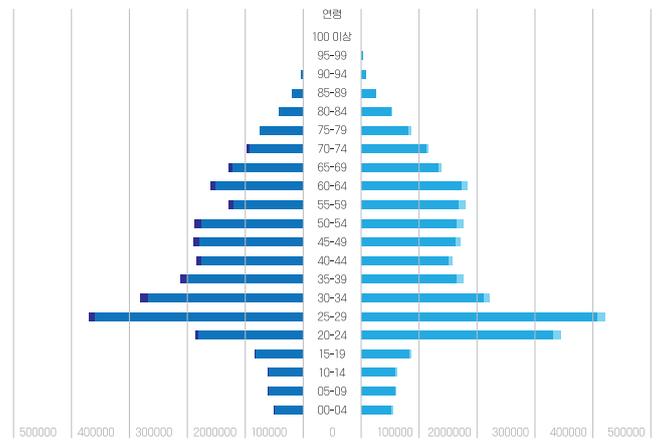
행정동별
관악구 살펴보기

19

관악구에는 두 종류의 행정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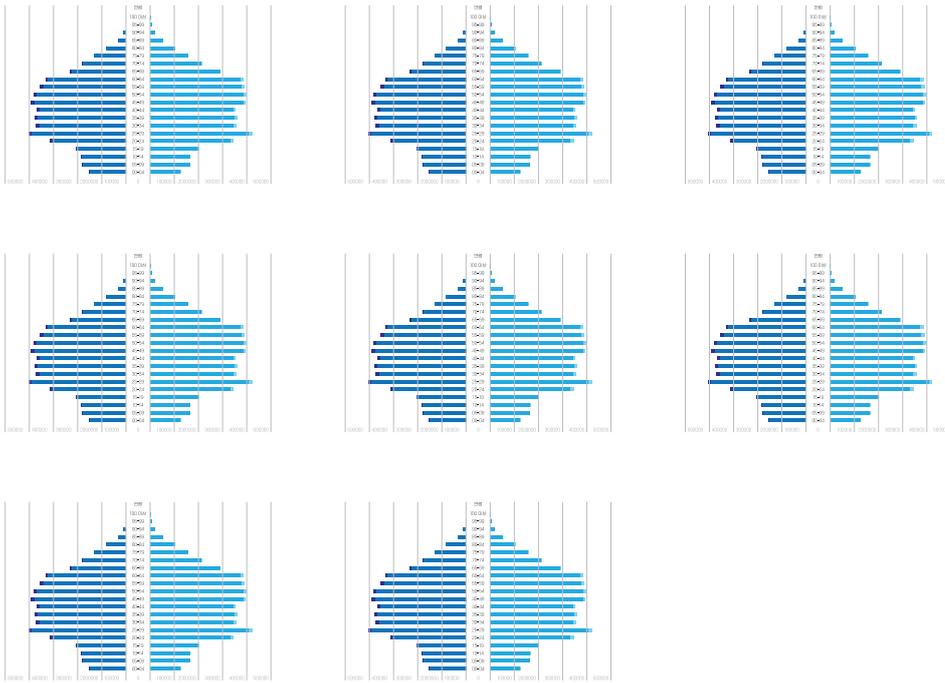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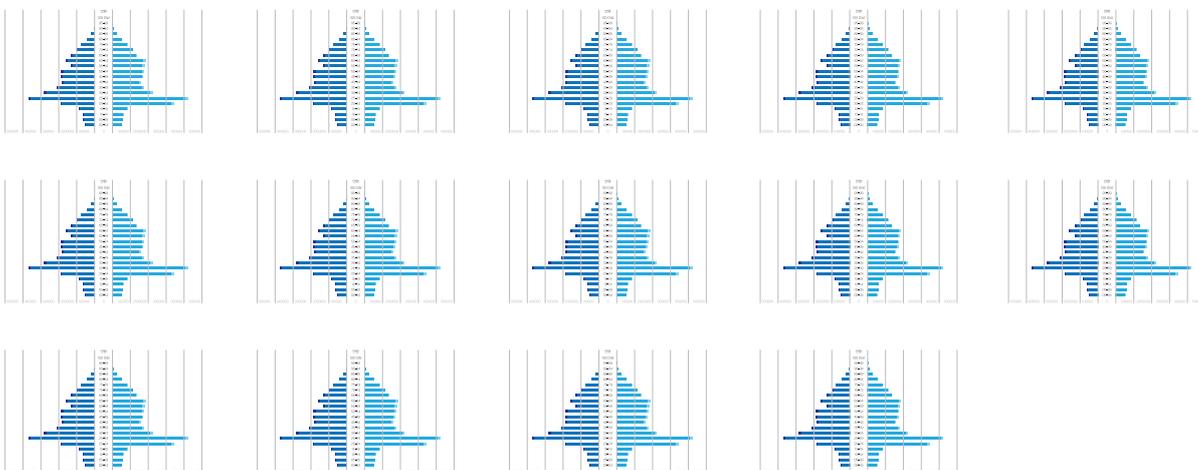
20

Type1. 전국/서울특별시 유형 (aka. 항아리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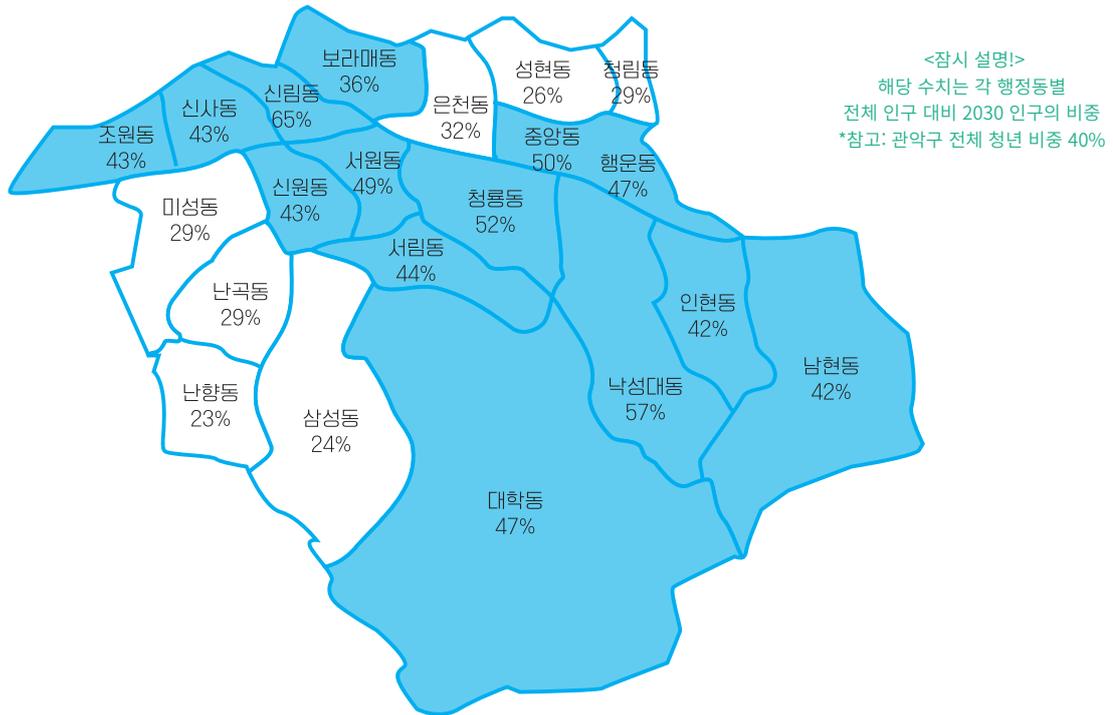
21

Type2. 관악구 유형 (aka. 비행접시모양)



22

Type1과 Type2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23

관악구에는 두 종류의 행정동이 있다!

- 관악구에 20~30대 청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음.
- 하지만 관악구의 모든 동에 청년들이 분산 분포된 것이 아니라, 7개 동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향아리형 모양의 인구 연령분포를 갖고, 나머지 14개 동에 청년들이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지하철 2호선 라인 주변 3개 동(낙성대동, 청룡동, 신림동)에 청년인구의 집중도가 가장 높음.
- 한편 구로구와 인접한 2개 동(신사동, 조원동)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데, 이들은 청년도 있지만 주로 40~50대에 집중되어 있음.

- 연령 및 국적은 문화서비스의 니즈(need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관악구 내에 문화서비스 니즈에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40~50대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고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당장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24

STEP 3

관악구 청년 가구 살펴보기

청년 가구, 왜 전입하나?

전입 사유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직업	50%	37%	28%	46%
가족	13%	19%	18%	20%
주택	16%	23%	28%	20%
교육	11%	8%	14%	4%
주거환경	5%	18%	6%	6%
자연환경	0%	0%	0%	0%
기타	5%	3%	5%	5%
계	100%	100%	100%	100%

직장#

분가와 합가 등

평수 넓히기, 주택 청약 등

학군, 사교육 등

근린 인프라 등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만 20세 ~ 만 39세의 가구원이
가구주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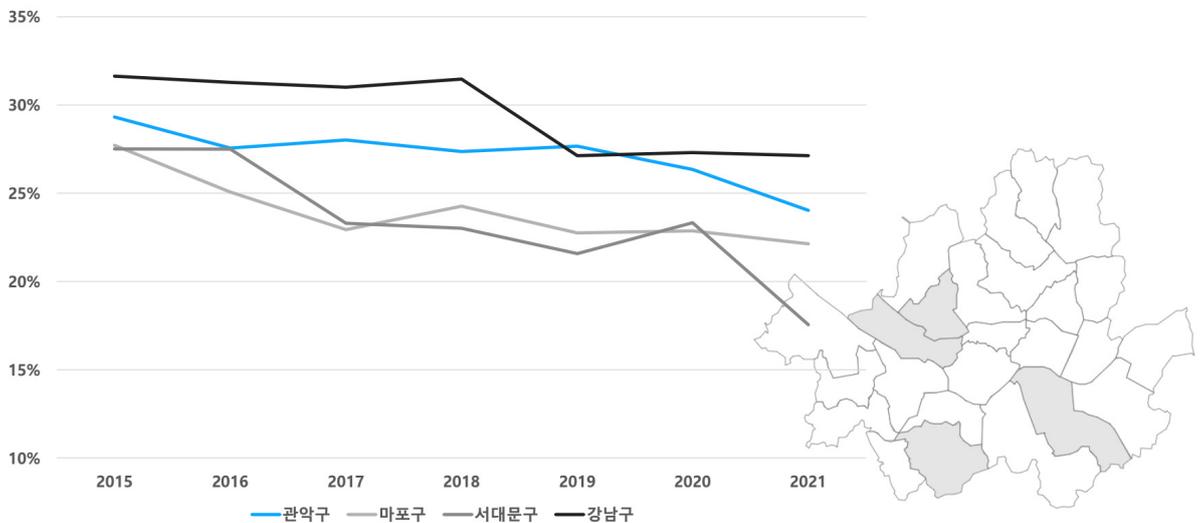
청년 가구, 어디로 진출하나?

전출지	전입지	2015	2020
관악구	서울	51%	46%
	인천/경기	30%	30%
	그 외 지역	19%	25%
마포구	서울	60%	55%
	인천/경기	26%	27%
	그 외 지역	14%	18%
서대문구	서울	59%	56%
	인천/경기	27%	26%
	그 외 지역	14%	18%

“더 활발해진 서울 내 이동”

“지역에서 관악으로,
다시 관악에서 지역으로!”

같은 구 내에서의 청년 가구 이동은?



관악 청년 가구,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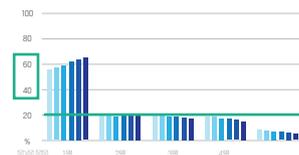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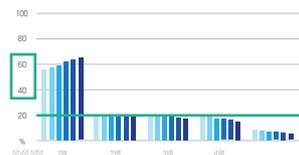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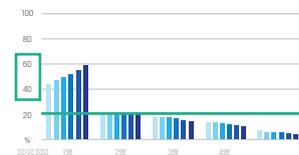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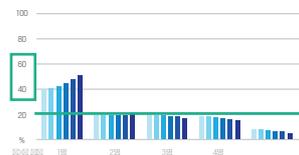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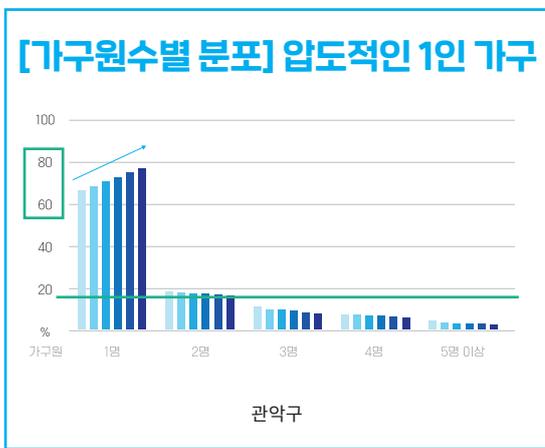
- 관악구에 청년 가구가 전입하는 이유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직업이지만,
- 관악구에 직장이 위치 한다는 것은 아님 (강남구와의 차이점)
앞서 지역 청년들의 이주 비율이 높았다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지역 청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찾는 거주지가 관악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관악구 청년들은 관악구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마포구와 서대문구와 달리 전 체 이동자의 2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된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관악구
-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떠날 때 다시 지역으로 가는 비율도 가장 높은 곳이 관악구
- 이주 청년들의 관악구 거주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설문조사 필요)
- 관내 이주 청년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관악구 거주 기간이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시사
거주 기간이 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가?
- 만일 그렇다면 문화서비스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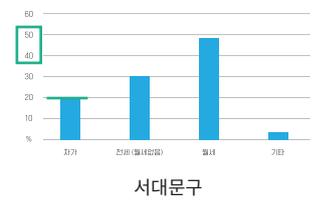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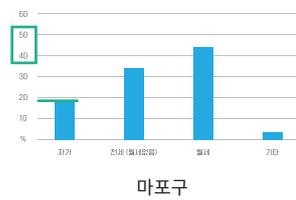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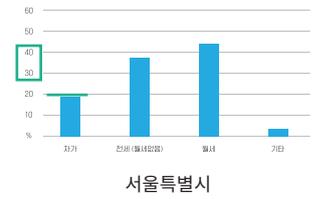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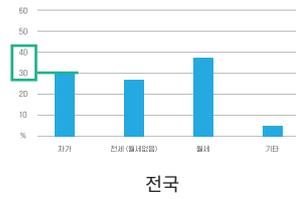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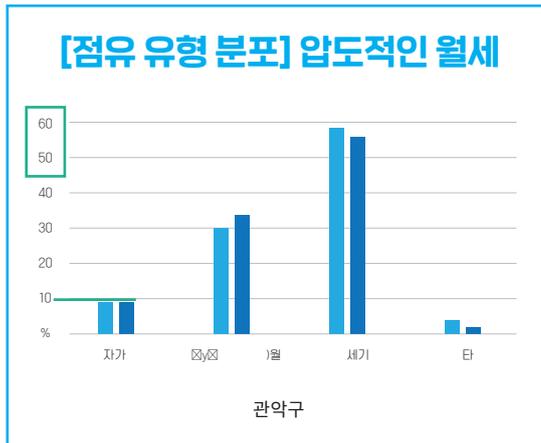
관악 청년 가구의 주거 형태

청년 인구가 가구주인 가구의



26

관악 청년 가구의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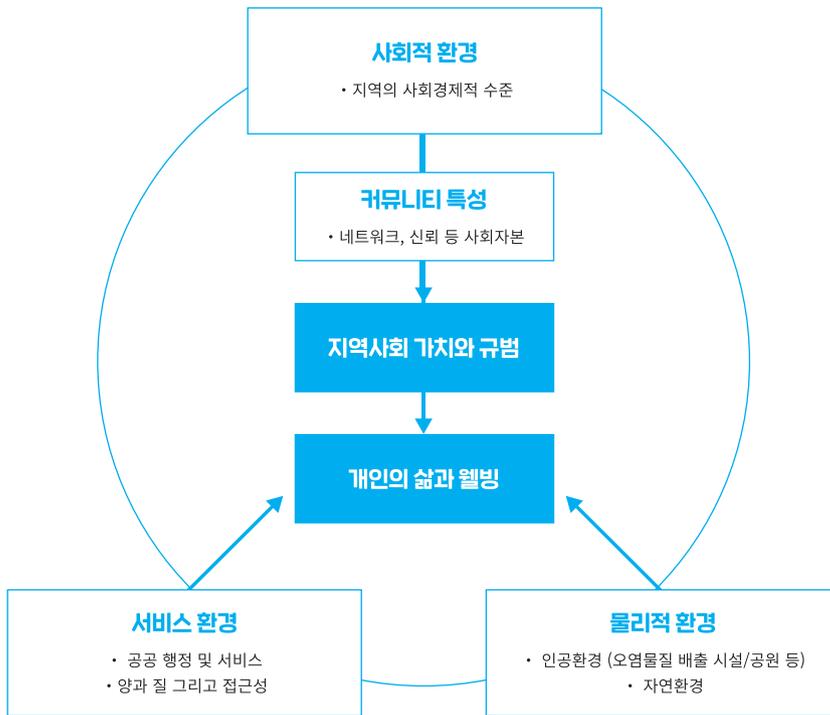
■ 2015 ■ 2020

관악 청년 가구: 압도적 1인 가구와 '월세'

- 관악구 청년가구는 1인 가구가 압도적인데, 최근 그 추세가 상승 중 (거의 80%에 육박)
 - 서울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60% 미만
- 반면 2인 가구 비율은 관악구가 서울시 평균 혹은 마포, 서대문구보다도 낮음.
 - 일반적으로 청년 2인 가구는 부부가구인데, 관악구는 혼인한 부부가구가 신혼을 시작할 곳으로 선호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할 것.
- 관악구 청년가구의 점유 형태는 압도적으로 월세이고 자가 비중이 매우 낮음.
 - 청년들에게 거주지로서 관악구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통계임.
 - 관악구는 혼자서 월세로 살다가 결혼을 하거나 경제력이 나아지면 떠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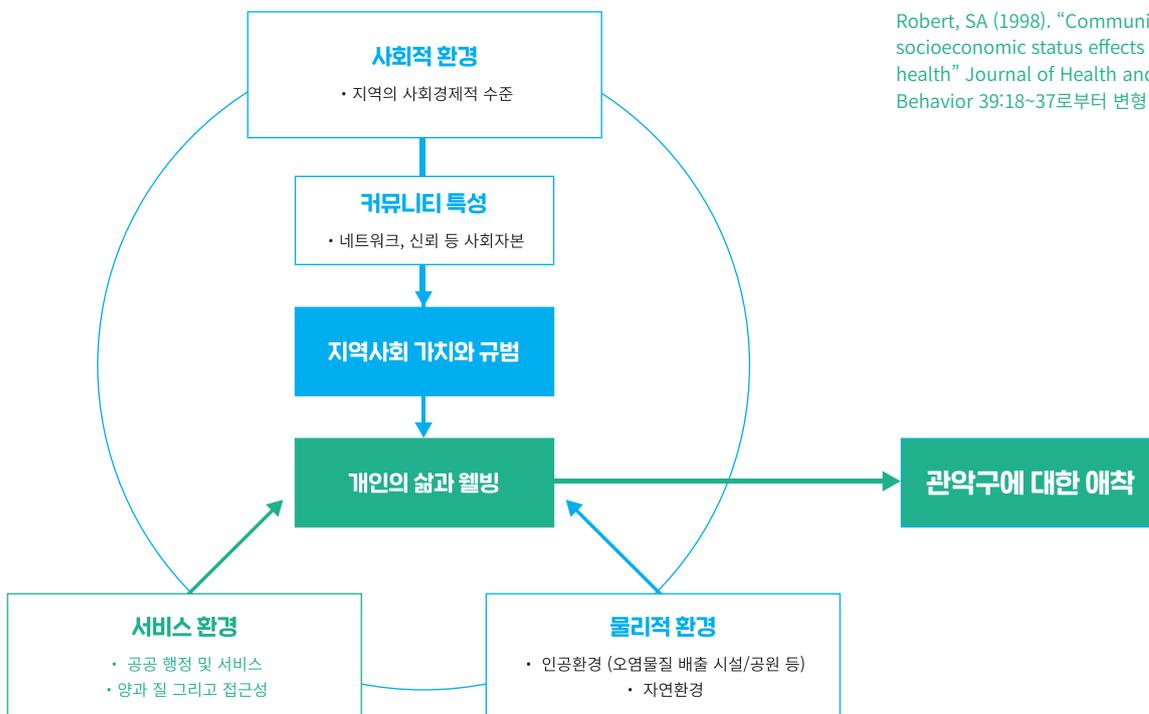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청년 1인 가구가 월세를 사는 곳의 주인은 관악 원주민 장/노년층일 수 있어 M세대vs.BB세대/집주인vs세입자/원주민vs전입자 등의 갈등 요소가 다분함

관악구는 청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Robert, SA (1998).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on adult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18~37로부터 변형

관악구는 청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Robert, SA (1998).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on adult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18~37로부터 변형

종합결론

[Key words]

- ▶ 압도적인 청년 인구
- ▶ 동별차이
- ▶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 ▶ 청년들의 생활지가 아닌 거주지
- ▶ 그런데1인가구일때만관악구거주
- ▶ 결혼하면 떠날 곳
- ▶ 월세사는곳

**청년이 많다고
청년이 선호 하는 곳은
아니다!**

27

종합결론

[Key words]

- ▶ 압도적인 청년 인구
- ▶ 동별차이
- ▶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 ▶ 청년들의 생활지가 아닌 거주지
- ▶ 그런데1인가구일때만관악구거주
- ▶ 결혼하면 떠날 곳
- ▶ 월세사는곳

[문화 서비스 정책방향]

- ▶ 청년 대상
- ▶ 동간차별적서비스제공? or 선택과집중?
- ▶ 청년들의 지역적 다양성 활용
- ▶ 주말 휴식의 조력자
- ▶ 1인가구를위한공간확장성서비스
- ▶ 막을 필요까지는...
- ▶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28

2021 문화다양성 확산 지원사업

청년특별시 관악을 위한 기초 연구 인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인쇄

2022년 6월 발행

발행처 관악문화재단

발행인 차민태

총괄 양지원

기획·행정 김은수

전화 02-828-5744

팩스 02-828-5860

전자우편 kes1104@gfac.co.kr

주소 (008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담당부서 생활문화팀

디자인 모눈스튜디오

홈페이지 www.gfac.co.kr

이 연구물의 저작권은 관악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 유포를 금합니다.
연구물에 실린 자료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